家父長的 理念에서 派生된 淪落女性의 問題點과 宣教的 對處方案 研究

－人間化 社會로의 發展的 追究－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전　　우　　섭

家父長的 理念에서 派生된 淪落女性의 問題點과 宣教的 對處方案 研究

- 人間化 社會로의 發展的 追究 -

지도孟 勇 吉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89년 12월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전 우 섭

전 우 섭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_____

부심 _____

부심 _____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9년 12월

감사의 글

먼저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과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여 주신 맹용길 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후원해 주신 충일교회 성도님들과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협조하여 주신 경기여자기술학원 원생들과 동두천 민들레회 회원, 각 구청 및 K.T.C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곁에서 용기를 주며 인생의 동반자가 된 아내와 원고를 정리하여 준 송진숙양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89 년 12 월

전 우 섭

目　　次

Ⅰ. 序　論 …… 1

A. 問題提起 및 目的 …… 1

B. 硏究 方法 …… 3

Ⅱ. 用語的 定義 …… 6

A. 家父長的 理念의 定義 …… 6

B. 淪落의 定義 …… 9

Ⅲ. 史的 考察 …… 13

A. 封建社會와 淪落 …… 13

B. 軍國主義와 淪落 …… 17

C. 共和國과 淪落 …… 24

Ⅳ. 社會學的 考察 …… 30

A. 社會構造 속의 女性 …… 30

B. 社會構造 속의 非人間化 …… 35

Ⅴ. 神學的 考察 …… 41

A. 聖經과 女性 …… 41

B. 基督敎 倫理學的 接近 …… 47

Ⅵ. 淪落女性의 종합적 보고서 …… 58

A. 人身賣買 조직과 淪落 …… 59

B. 淪落女性의 의식구조 ····· 66
C. 淪落女性의 의식구조 분석 ····· 76
D. 淪落女性의 자아개념 분석 ····· 81
E. 淪落女性의 욕구진단 분석 ····· 84
F. 淪落女性의 MMPI 분석 ····· 88
G. 淪落女性의 지능검사 분석 ····· 90
H. 淪落女性의 성병검사 ····· 91
1. 檢査方法 ····· 91
2. 檢査結果 ····· 92
I. 淪落女性의 혈액형 검사 ····· 93
J. 淪落女性의 생활 분석 ····· 94

Ⅶ. 淪落女性 宣敎를 위한 프로젝트 ····· 96
A. 宣敎方法 ····· 96
B. 敎會 共同體 안에서의 宣敎 ····· 97
C. 敎會와 地域社會 共同體 안에서의 宣敎 ····· 100
D. 人間化에 대한 追究 ····· 105

Ⅷ. 結 論 ····· 108

參考文獻 ····· 111

I. 序　　論

A. 問題提起 및 目的

Martin Luther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 본래의 의 또는 최초의 의(Original Righteousness)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가진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고, 완전히 경건되고 인간화된 성(性)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다.[1] 그러나 이러한 인간화된 성(性)의 개념이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변하고 말았다. 즉 창조주 고유의 개념인 평등적 번성의 성(Reproduction Sex;

וַיְבָרֶךְ אֹתָם אֱלֹהִים וַיֹּאמֶר לָהֶם אֱלֹהִים פְּרוּ וּרְבוּ וּמִלְאוּ אֶת־הָאָרֶץ וְכִבְשֻׁהָ

וּרְדוּ בִּדְגַת הַיָּם וּבְעוֹף הַשָּׁמַיִם וּבְכָל־חַיָּה הָרֹמֶשֶׁת עַל־הָאָרֶץ׃)[2]

이 비인간화된 세속적 성(Secular Sex) 혹은 비 경건적인 성(Unspirituality Sex)으로 바뀌어져 버렸다.[3] 이런 의식의 변화와 이런 의식을 잘못 사용하려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 개의 성 가운데에는 소위 종속주의가 생기게 되었고, 이런 종속의식은 급기야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잡은 불완전한 인간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하나의 인격을 억압하는 모순으로 표출되고 말았다.

---

1) 맹용길, 신학과 윤리(서울 :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2), P.15.

2)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Ge.1:28(Germany : DBS, 1984).

3) 약 3:15.

결국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은 남성은 그들만의 문화와 그들만의 이데올로기를 창조해 내었고, 여성들을 노예화 혹은 상품화 시켰으며 또한 인위적으로 만든 가부장적 이념 사회에 예속시켜 버렸다. 따라서 이런 예속이념 사회에서 파생된 전형적인 피해 소산인 윤락(혹은 매매춘)은 분명 우리의 현실 문제이며 우리 자신의 문제임에 틀림없다. 초대교회 이후 여러가지 유형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선교활동을 벌이듯이 국내외적으로 피선교대상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 사회만 하더라도 현 문화적 유형으로서는 동화될 수 없는 이방지대가 있고 특히 윤락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것이다. 구조적인 모순인 윤락을 고수하려는 반사회적인 세력들은 복음선교의 효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이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범죄, 자포자기,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현실은 소외된 민중(ὄχλος, Amhaaretz)[4] 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사회와의 막힌 장벽을 헐어 버리고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종교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하였다. 이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

4) 안병무, "예수와 오클로스," 민중과 한국신학(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87), pp.99-101.

한 구조적 모순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순 속에서 선교적 프로젝트를 어떻게 세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인간화된 사회에서 바른 인간성의 회복과 인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본 논문의 관심이며 과제이다. 아울러 Feminist 관점에서 어떻게 이들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특수사역 목회에 대한 올바른 정립에 본 논문이 조금이나마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논문 작성의 목적이 될 수 있다.

B. 研究方法

본 논문은 서론과 6장의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 되었음을 밝혀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 2장에서는 가부장적 이념과 윤락에 대한 정확한 용어적 정의를 고찰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현실문제를 다루려 했기 때문이다.

제 4장에서는 사회학적인 고찰을 통해 구조적인 모순을 파헤치고 사회병리 현상을 진단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신학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새로운 인간성을 정립하였고, 특히 성경속에서의 올바른 여성관을 모색하였으며 기독교 윤리학적인 접근을 통한 상황접근을 시도하였다.

제 6 장에서는 윤락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① 1980-1982년 기간에 윤락여성 의식구조 파악을 위한 앙케이트를 조사하였으며 1988년 4월 한 달 동안에 제 2 차 의식구조 파악을 위한 62문항의 앙케이트 조사를 다시 실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88년도 조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대상지역은 수도권내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경기도, 동두천 지역, 포천 지역, 문산지역, 양주 지역[5]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표본수집을 위한, 연령제한은 없었지만 주로 12 ~ 25세 까지가 대상이 되었다.[6]

② 임상학적 검사(Clinical pathology)는 국내에서 공인되어 현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을 택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자의 직접적인 검사에는 혈청학적 검사(Serologic Test)와 혈액학적 검사(Hematological Test)가 주로

---

5) 이들 지역에는 주로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국내인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과의 비교분석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동두천 지역은 윤락여성 수용기관인 "경기여자기술학원"을 중심으로 하였고, 서울지역은 청계천, 청량리 일대가 주로 연구대상이 되었다.

6) 이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항상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고 또 그만큼 인원이 유출되고 있다.

사용 되었다.

③ 표본수집을 위해 보건통계(Public Health Statistics)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인구통계(Demography)의 기본원칙에 의해 실시 하였다.

④ 윤락의 문제점들을 알기 위해 역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분석역학(Analytical Epidemiology)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⑤ K.T.C (Korean Testing Center)의 도움을 받아 여러가지의 심리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제 7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윤락여성 선교를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윤락여성 선교를 위한 방향모색을 시도하였으며 사회복지적인 조직패턴을 통한 사회적 수용을 제시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인간화에 대한 추구를 통해 끝없는 인간화에 대한 열망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Ⅱ. 用 語 的 定 義

A. 家父長的 理念의 定義

가부장적(Patriarchy)이란 개념은 여성해방 운동가들에 있어서는 가장 적대시되는 개념이다. 이는 헬라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직역하면 "아버지만의 지배"를 뜻한다.[7] 그러나 이 개념이 여성해방론자들의 고유의 창조적 개념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이러한 개념은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8]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이 개념은 포함되어 있다.

" *Οὕτως οὖν προσεύχεσθε ὑμεῖς· Πάτερ ἡμῶν ὁ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9]

애드린느 리치(Adrienne Rich)는 가부장제를 보다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부장제란 남성의 권력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가부장적이란 남성이-힘이나 직접적인 압력을 사용함으로써 혹은 의식이나 전통, 법률, 언어, 습관, 예절,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의 할 일이 무엇이며, 해서는 안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

7) Veronica Beechey, "on Patriarchy," Feminist Review, no.3, 1979, pp.66~70.

8) Ibid., pp.71~82.

9)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XXVI ed. (Germany : DBS. 1979), p.13.

결정하고 남성 아래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체제이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은 휘장 안에서 살 수도 있고, 트럭을 몰수도 있다. 아니면 원주민(Berber) 마을의 진흙담집에 살면서 이른 아침마다 남편에게 커피를 대접 할수도 있고 대학 졸업식 행렬에 참가 할수도 있다. 여성은 나이나 지위나 상황이 어떠하든 또한 자신에게 허락된 경제적 계급이나 선호도가 어떠하든 여성은 남성의 지배에 살게된다. 가부장제하에서의 여성은 남성의 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댓가를 치룰때만,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특권을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뿐이다."[10]

라고 정의 하였다.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t)는 보다더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권력으로 가는 모든길이 전적으로 남성의 수준에 있다는 것"[11]

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고 정의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

---

10) Adrienne Rich, of woman Born :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New York : W.W.Norton, 1976), pp.57-58.

11) Kate Millett, Sexual Politics (New York : A Von Books, 1971), p.25.

고 있는 사회는 전부 Patriarchy Society라고 볼수 있다.[12)]

사회주의 해방론자들이 동의하는 가부장제의 특징들을 보면[13)];

① 가부장제라는 범주는 남성지배, 여성종속의 사회관계의 총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② 가부장제는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사회와 생산양식 속에서 존재해 온 것으로 인식된다.

③ 가부장제는 위계의 체계이며 그 속에서 여성에 대한 지배를 획득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남성에게 권력과 통제력이 부여된다.

④ 가부장제는 계급을 초월하여 남성들간의 연대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그것에 의해 유지된다.

⑤ 가부장제와 생산양식간의 (또는 가부장적 관계와 계급 관계간의) 관계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가들마다 각기 약간씩 다르게 설정된다.[14)]

---

12) Hester Eisenstein, Contemporary Feminist Thought, 한정자역, 현대여성해방사상(서울 : 이대출판사, 1986), p.42.

13) Linda Burnham, Miriam Louie, A marxist critique of Socialist Feminism, 김혜경, 김애령역, 여성해방 이론의 쟁점(서울 : 태암사, 1989), pp.151 ~ 152.

14) 이 말에 대한 반대적 개념으로 자유주의적 Feminism, 마르크스적 Feminism, 급진적 Feminism등이 있으나 이것 역시 Ideology화 할 염려가 있다. 진정한 Feminist는 Humanism적사고 보다는 인간성(Humanity) 회복을 위한 신중심적(Theocentric)의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래의 창조 섭리는 동등성이 부여된 인간화에 중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부장적 이념이란 하나의 성(性)이 다른 하나의 성(性)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만의 문화를 고수 하려는 이념적 보수주의를 말한다고 볼수 있다.

B. 淪落의 定義

구약에서 윤락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자나(זָנָה ; zānā)인데 성경에 "간음하는자" "행음하는자"로 번역되어 있다. (창 34:31, 38:15, 출 34:16, 렘 3:3, 민 25:1, 신 23:19, 잠 7:10)이 동사는 Qal어간으로 89회, Paul형으로 1회, 그리고 Hiphil형으로 9회 나온다. 이 단어는 "불륜의 성관계를 맺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단어는 세속적 윤락과 종교적인 윤락의 두가지 모두에 다 적용되는 말이며 때때로 상징적 의미로도 사용되어졌다.[15]

또다른 단어로는 케데샤(קְדֵשָׁה)가 있는데 그 어근의 의미는 "떨어져서" "거룩한(바벨론 언어로는 qadishtu)" 뜻으로서 종교적인 사원 혹은 사제들의 윤락인에 대하여 사용되어졌다. 그리고 이 여성형 단어와 관련된 남성형 단어로는 카데쉬(קָדֵשׁ -남창)가 있는데 이또한 종교적 윤락인으로 번역된다. 이밖

---

15) 항목 "매춘," 기독교 대백과 사전 5권(서울:기독교문사) 1982년도판, 창조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때 야훼는 이것을 남·녀간의 배신으로 자주 표현하였다. 호세아서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에도 제누님(זְנוּנִים), 제누트(זְנוּת), 타즈누트(תַּזְנוּת)등이 사용되어졌다.[16] 이것은 모두다 "성을 주고 받음"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신약에서 사용된 윤락이라는 용어는 포르네(πόρνη)인데 마21:31, 눅 15:30, 고전 6:13 등에서 나타난다. πόρνη는 "팔다"는 뜻을 가진 πέρνημι에서 파생되었다. 또한 πορνος는 포주 혹은 남창을 의미하며 πορνέω는 수동태로 "간음을 범하다" 혹은 "자신을 매음하다"를 뜻한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신들을 따라간다는 의미로 ἐκπορνεύω(간음을 범하다. 간음을 유도한다)가 사용되기도 하였다.[17] 영어로는 Prostitutes라고 하는데 "금전에 좌우되어 절개를 굽히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다. Prostitutes는 보통 윤락녀와 남창을 모두 가리키는 단어로 세속창녀이거나 또는 성소에 소속되어 있는 거룩한 창녀를 통칭하고 있다.[18] 이 단어 자체적 의미는 "아테네의 제물"이라는 뜻의 Prostare에서 유래 되었다.[19]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매춘(賣春) 혹은 매춘부(賣春婦)라는 용어가 사용

---

16) R.L.Harris, G.L.Archer, and B.K.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I, 구약원어신학사전(서울 : 요단 출판사, 1986), p.305.

17) Gerhard Kittle,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 Bromiley. G.W.Rapids. G. 신약성서 신학사전(서울 : 요단 출판사, 1986), p.654.

18) 기독교 대백과 사전 5권, loc.cit.

19) 윤일웅, 매춘(서울 : 동광 출판사, 1987), p.20.

되어 왔는데 이말은 "정조를 바치고 돈을 받은 여자"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같은말로 매음(賣淫)이란 말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말은 "함부로 여러 남자들에게 정조를 파는일"로 풀이하며 매춘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20] 반면에 윤락(淪落)이란 용어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 되어지는데 "몰락하여 타향으로 돌아다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21] 1988년 후반기부터 매매춘(賣買)[22] 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만이 성을 파는것이 아니라 결국 남성도 자신의 성을 "사고 파는" 관계임을 남여동등성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용어라고 볼수 있다. 이밖에도 이런 여성들을 창녀, 매소부, 양공주, 양부인, 갈보, 소맥분, 화랑유녀, 은군자, 탑앙모리 등의 은어로 통칭되기도 하였다.[23]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윤락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가장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고난성을 더욱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매춘 혹은 매매춘이란 말은 잘못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많이 내포 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윤락이란 완화된 표현속에는 여성의 고난성이 함께 내포되어

---

20) 국어 국문학회 지은, 새 국어사전(서울 : 학연사, 1971), pp.249 ~ 250.

21) Ibid., p.604.

22) 여론화된 모 극장의 매춘 공연 금지 문제 이후 매매춘이란 용어가 새로이 탄생되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23) 윤일웅, loc.cit.

있다고 볼수 있고 반면에 매춘이라는 용어속에는 자본주의적 상행위성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윤락이란 "잘못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몰락된 여권의 고난성"을 의미한다.

Ⅲ. 史 的 考 察

A. 封建社會와 論落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이전의 평등사회 혹은 모권사회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신석기 이전에는 남녀가 지위상 어느정도 평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신석기시대를 거치면서 남성은 자신감에 넘쳐 여성에 대한 우위를 확신케 되었다.[24] 유사시대(有史時代)의 첫 30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서부인도에 살던 농경민들은 여러차례 유목민들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한 침략은 때로는 평화적이었지만 때로는 전쟁을 방불케 하였다. 그들 유목민 집단은 남성위주의 사회에다 남성위주의 종교를 가졌고 정착민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막상 유목민들이 정착하게되자 그들의 신화와 믿음은 기존의 토대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25] 더러는 기존 신앙을 압도하여 그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고, 더러는 원래의 의미를 강조해 주기도 했다. 여러 도시들이 아직도 막강한 여신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신전에서는 여신들에게 결코 상위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26] 그러기 때문에 여신이 있

---

24) 농경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역할분담은 상대적인 우위성을 가진 사고방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Reay Tannahill, Sex in History, 김광만역, 性의 역사(서울 : 김영사, 1987), p.9.

25) Ibid., p.46.

26) Ibid., p.47.

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래된 문화에 나타난 수태(受胎)의 神들은 모두 남자였다. 중근동(수메르, 바빌로니아, 이집트, 우가리트, 힛타이트, 히브리)의 신화 어디에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여신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 형태의 신전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신들을 모시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바빌로니아의 아쉬타르(Ishtar), 가나안의 아나트(Anath), 이집트의 이시스(Isis)등이 그 분류에 속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남편 또는 형제들(Dumuzi, Tammuz, Baal, Osiris)의 보조역이었다. 반면에 중국인들만이 탁월한 여신의 개념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자를 대모(大母)로 보았다. 대모는 성적 행위를 통해 남편을 양육하고 무진장의 보급으로 남편의 제한된 힘을 재생시킨다고 중국인들은 믿고 있었다.[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모든 여건은 가부장제에 귀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윤락행위는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의식 속에서 더욱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근동문화, 헬라문화, 로마지배문화, 사라센문화를 거쳐 중세 유럽문화에 와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1490년대 로마에서는 윤락여성이 7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수도원이나 교회에 딸린 집에서 살았던 윤락녀들이 성직자와 함께 거리를 활보하는 광경은 아주 흔한 것이었다. 연대기록자인 산누도(Sanudo)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에 베니스에는 전체 인구 30만 중에 11,654명의 윤락여성이 있었다고 기록 하였다.[28]

---

27) Ibid., p.49.
28) Ibid., p.256.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위선적인 性의 억압과 은폐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성본능발달 학설[29]로 부터 시작된 성의 개방은 세계대전을 계기로 더욱 확산이 되었다.[30] 우리나라 윤락의 봉건적 형태는 보통 관기였다. 옛 사람들은 창녀(倡女)를 창우(倡優)와 같이 여겨 여령(女伶)을 창이라 하였고, 남령을 우라 하였다. 이 뜻은 여자나 남자나 소리꾼이 술좌석에서 노래 부르며 꼭두각시 놀음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31] 시대가 흐름에 따라 창녀가 번창하게 되었는데 의약, 침 같은 기술, 또는 가무(歌舞)의 기예를 배워 익혀서 나라에 필요한 때 봉사하는 여성이 되었다. 기(妓)는 여악(女樂)이라 하여 지방관속들의 객고를 풀기 위해 어떤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여성을 지칭하며 보통 기녀(妓女) 또는 기생(妓生)이라고 하였다. 이런 여성들은 제도적으로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신분상으로는 천인에 속하였다.[32] 나중에 창녀와 기녀가 합류되어서 창기(倡妓)가 되었다.[33]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기녀가 남

---

29) 최혜란,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학일 총서 I (서울 : 학일출판사, 1987), pp. 127 ~ 140.

30) 이동식, 性愛의 精神醫學, 현대인 강좌 6 (서울 : 박우사, 1963), p. 44.

31) 이현희, 창기와 명기의 애환, 한국여성 5천년사 7 (서울 : 명문당, 1988), p. 20.

32) 한국 여성사 I (서울 : 이화여자대학 출판사, 1984), pp. 518 ~ 529.

33) 이현희, loc.cit.

성위주의 봉건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여성자신의 기능과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렸고, 더 이상의 생활력을 영위할 수 없게된 여성들은 결국 남성의 흥을 돋는 자리로 전락되고, 몸을 파는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다. 특히 봉건적 유교의 전통 속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숨막히는 생활을 해 왔으며 가부장 사회는 여성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시켰다.

양반 이데올로기 집단이나 역시 상놈 집단에서도 여성은 똑같이 소외계층이고 이러한 소외됨을 탈출하기 위한 최선의 자구책은 몸을 제공하는 행위 뿐이었다. 이때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가부장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여성직능의 하락화

② 전쟁중의 부녀(婦女)의 노비화

③ 가부장제에 의한 사노비의 윤락화

④ 사회참여의 제동을 통한 여성의 단순 노동화

⑤ 유교 이데올로기를 통한 여성의 무력화

⑥ 임금의 등급을 통한 봉급의 차등화

⑦ 교육 균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교육의 불평등화

⑧ 성역할의 이분법 논리에 의한 양극화

⑨ 칠거지악등 악법을 통한 보수주의의 고수화

⑩ 불평등 사회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회의 비인간화

B. 軍國主義와 淪落

근대 집단적 공창지역이 이 땅위에 세워진 것은 일본인에 의해서였다. 일본인들은 한반도를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여러가지 독재정책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한반도의 민족의식을 퇴색시키고 둔화시키기 위해서 공창제도를 합법화하는 정책이었다.

(1906～1910 사이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 윤락녀 수)[34]

년 도	수
1906	2,947 명
1907	2,675 명
1908	4,253 명
1909	3,953 명
1910	4,417 명

자료 : 조선총독부 통계 연보.

그래서 지금의 회현동 및 서울역 일대에는 수 많은 일본 포주들이 상주하게 되었다. 사실 이전의 한국 사회의 윤락행위는 은밀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사창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노·일전쟁이 끝난후 1904년 6월 "신

34) 문정창, 국군 일본 조선 점령 삼십 육년사, 상권 (서울 : 백문당, 1965), p.106.

마찌"라는 공창허가법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공포되었다. 그러자 이러한 공창허가법을 발판으로 부산의 완월동, 인천의 선화동(일명: 옐로하우스), 군산, 대구, 청진, 신의주, 목포, 대전등으로 공창지대는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산의 완월동은 일본인들이 그 지역 땅 전부를 사들여 윤락경영자에게 분양하여 한반도 최대 규모의 사창가를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지역이름 마저도 "미도리 마찌(녹정)"라고 지어서 이 땅의 여성들을 남성의 희락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35]

더구나 일제 말기에는 소위 "여자 정신대"를 조직하여 만주로 혹은 동남아로 여성들을 내보내 아무 죄없이 남성 군국주의의 희생물로 만들어 처참하게 죽어가게 만들었다. 1911년과 1918년 사이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대거 발생한 농민의 몰락과 농토 상실에서 농민 인구가 도시로 이주해 옴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1910-1942년간 연평균 약 205,000만호의 농가가 이농하였으며 200,000만호가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고 나머지는 전업 내지는 북만주 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자연히 여성들도 산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윤락화를 가속화시키게 되었다.[36]

---

35) 윤일용, op.cit., p.26.
36) 이효재, 여성의 사회의식(서울 : 평민서당, 1985), p.46.

연도별 공장 노동자 수(괄호 안은 전체 직공 대비 여직공)

년 대	공장수	전체종업원수	직공수		
				남	녀
9101	151	—	8,203	—	—
1922	2,900	54,677	48,043	38,173	9,849 (20.5%)
1925	4,238	80,375	70,281	62,910	17,465 (24.8%)
1926	4,293	83,450	73,374	54,729	18,645 (25.4%)
1927	4,914	89,142	78,347	57,050	21,297 (27.2%)
1928	4,010	92,566	77,094	51,098	25,996 (33.7%)
1929	4,025	93,765	78,151	52,139	26,012 (33.3%)
1930	4,261	101,943	83,900	55,612	28,288 (33.7%)
1931	4,613	106,781	86,419	58,762	27,657 (32.0%)
1932	4,643	110,650	19,600	60,826	28,774 (32.1%)
1933	4,838	120,320	99,430	66,148	33,282 (33.5%)
1934	5,126	138,809	113,281	74,494	38,787 (34.2%)
1935	5,635	168,771	135,797	90,715	45,682 (33.2%)
1936	5,927	188,250	148,599	98,241	50,550 (33.3%)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이 당시 조선인 성년 남자의 임금은 일본인의 1/2, 조선인 성년 여자의 임금은 일본인의 1/4, 유년 여자의 임금은 일본인의 1/6 수준이었다.[37]

민족별·성별 최고 최저 임금 대조표(1929년, 단위 : 원)

민족별	성별	연령층별	최고		최저	
			업종	임금	업종	임금
일본인	남	성년공	병기제조업	3.82	과자제조업	1.50
		유년공	제사업	1.00	의복재봉업	0.38
	녀	성년공	고무공업	1.60	성냥제조업	0.70
조선인	남	성년공	조선업	1.80	온박제조업	0.70
		유년공	차량제조업	0.70	파제조업	0.25
	녀	성년공	양말제조업	0.98	파제조업	0.35
		유년공	고무공업	0.54	의복재봉업	0.19
중국인	남	성년공	시멘트제조	2.56	모자제조	0.50

(자료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37) 이여성, 김세용, 숫자조선연구, 제 2 집(경성 : 세광사, 1931), pp.80~82.

자연히 노동쟁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성들은 자연적으로 사창가로 타의든 자의든 모이게 되었다.[38]

노동쟁의 원인별 결과별표

연 차	결과 / 원인	거 절	관 철	철 회	타 협	계	원인별 구성비
1921 ~ 1924	임금인상 요구	3	46	19	23	85	42.7
	임금인하 반대	1	12	37	27	77	38.7
	대 우 개 선	2	2	4	1	9	4.54
	기 타	4	11	9	4	28	14.0
	계	10	65	69	55	199	100.0
	결과별 구성비	5.6	32.5	34.6	27.7	100.0	
1925 ~ 1929	임금인상 요구	35	49	35	51	174	37.6
	임금인하 반대	15	14	14	21	78	17.2
	대 우 개 선	9	12	15	18	54	11.9
	기 타	18	64	16	65	183	40.1
	계	77	139	80	155	451	100.0
	결과별 구성비	17.0	30.8	17.7	34.4	100.0	
1930 ~ 1933	임금인상 요구	66	39	35	56	196	27.8
	임금인하 반대	56	19	23	78	176	25.4
	대 우 개 선	26	13	14	27	80	11.5
	기 타	42	71	44	84	241	34.8
	계	190	142	116	245	693	100.0
	결과별 구성비	27.4	20.5	16.7	35.4	100.0	

(자료 :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38) 김윤환,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서울 : 일조각, 1971), p.71.

조선조 전통사회의 내적 붕괴와 일제침략에 따른 식민지사회구조의 형성은 한국민족을 빈민화하였다. 따라서 급격하게 증대된 빈궁한 도시민과 농민들이 노동자계급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들 가난한 가정의 생존을 위해 어린 소녀들까지 임금노동자로서 그들의 노동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성근로자들은 사실상 전통적인 부계 가족제도에 얽매여 의존적인 상태에서 현재적 여권이나 노동운동의 의식이 싹틀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민족적 차별과 생존의 위협 그리고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의 집단적 항거와 노동쟁의는 곳곳에서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에는 조직적 기반없이 발생하였으나 노동계급의 의식이 개발되는 가운데 조직적 운동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남성주도의 일반노동운동의 기운이 시대적으로 고조된데서 영향을 받아 각종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단체와의 연대속에서 어느 정도 조직화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일반 집단적 노동쟁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성주도의 독자적 투쟁은 확대되어 갔으며 투쟁의 방법과 전략등 극히 독창적이며 극렬한 현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지식층 여성단체들이 사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가운데 남녀 불평등에 대한 의식과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여성노동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이러한 사회운동이나 조직적 투쟁은 계속 발전할 수 없었다. 일제 식민지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 노동자로 당한 삼중 사중의 착취와 억압에 비추어 조직적 노동투쟁과 여성노

동운동이 어느 정도 싹틀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지배민족으로 당하는 여성의 노동문제를 남녀불평등의 관점에서 문제삼을 수 없으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민족독립과 가족생존의 절박한 문제에서 분리될 수 없는데서 여성노동운동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하며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여성노동은 민족주의적 그리고 계급해방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적 성격이 혼합된 채 한국적인 복잡한 역사적 성격을 지니게된 것이다.[39] 결국 일제의 행위는 전쟁말기에 이르러 여자 정신대를 조직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는데, 해방이 된 오늘날 까지도 이들에 대한 아픔은 계속 이어져 내려옴을 볼 수 있다. 일제의 군국주의는 인간의 비인간화 작업에 기여를 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이러한 요소는 변형된 모습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일본의 전형적인 남성위주의 군국주의는 한반도를 완전 강탈하기 위해 이 땅의 여성들을 철저하게 이용했을 뿐아니라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볼때 일제 36년 역사는 바로 여성수탈의 역사였다고도 볼 수 있다.

---

39) 이효재, 한국의 여성 운동(서울 : 정우사, 1989), pp. 125~126.

C. 共和國과 淪落

"韓國女性은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있으며 특히 韓國의 기생 호스티스가 대거 日本에 진출해서 몸을 바치며 분투하는 愛國忠節은 훌륭한 것이다."[40]

해방 후 공창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산업화, 고도성장화를 통해 외화벌이 사업에 혈안이 되었던 독재정부는 여성의 몸을 무기로 권력의 부를 쌓아 가려고 하였다. 여성을 직장에서 푸대접 받게 하고, 공장안에서의 엄청난 저임금과 불이익을 강요당하게 하며 이것을 견디다 못한 여성이 생존을 위해 내·외국인을 상대로 외화벌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을정부는 공공연하게 묵인 내지는 조장하였고, 인간성 말살의 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비인간화를 적극 유도하여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 하였다. 죽도록 노동을 해 보아도 겨우 입에 풀칠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땀흘려 노동을 할려고 하겠는가?

또한 정권과 유착된 반민족적 매판 기업인들이 자본주의국가의 최대약점인 독점자본을 발판으로 더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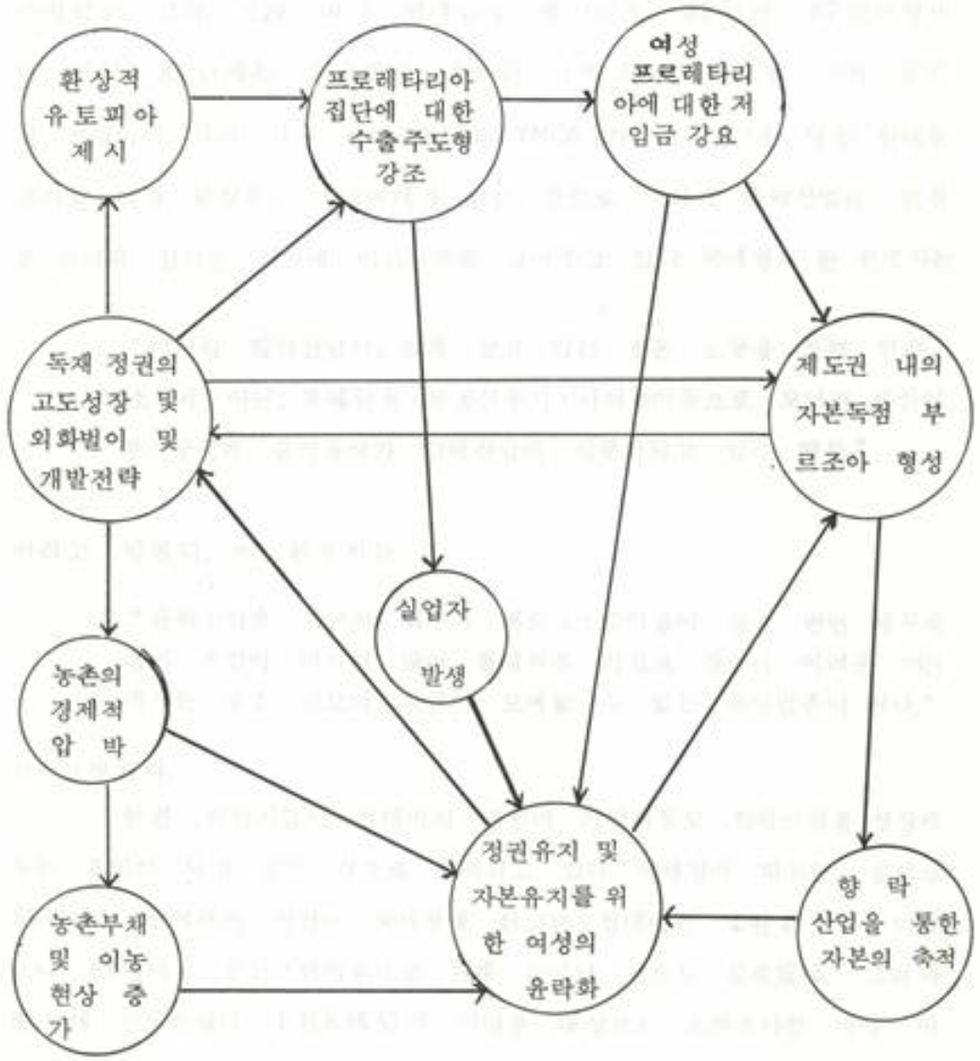
---

40) 전우섭, "윤락여성을 변호함," 로고스 제 24 집 (서울 : 장로회신학 대학원, 1988), p.246.

이글은 1973 년 10 월 26 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회견에 실린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민관식씨는 후일 이 내용을 부인했다고 하나 어떠한 법적 대응책도 취하지 아니했다.

여 신고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출액은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주의의 윤락화 도식)



윤락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매출액의 급신장 외에도 윤락업소의 증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83년 접객 업소는 24만6천여개(현대사회연구소 조사)였으나 85년에는 31만4천여개(보사부 통계)로 늘었고, 89년에는 45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객업소 종사원도 83년에 87만여명이던 것이 85년에는 1백만명, 올해는 1백30여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가 최근 서울 영등 일대를 조사한 결과 룸살롱만 1백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윤락산업의 번창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 "이처럼 향락산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이 아닌, 특혜금융·부동산투기·사채놀이등으로 모아진 재산이 투기꾼에게 흘러들어가 향락산업에 재투자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윤락산업은 자본의 회수가 빠르고 수익율이 높은 반면 세무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현재처럼 기업의 창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중소 규모의 자금이 모여들 수 있는 유망업종이 된다."

고 설명했다.

한편 재벌기업의 접대비와 판공비, 기밀비등도 향락산업을 성장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85년에 3만여개의 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한 접대비는 4천48억원 이었으나 87년에는 6천7백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85년에 한국은행이 1천8백57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바에 따

르면 이들 기업이 사용한 접대비는 1억5천1백만원으로, 국세청 신고분보다 10배나 높은 실정이다. 서울 YMCA시민지구 운동본부가 89년 10월 18일부터 7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향락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공청회에서 서울 시립대 이근식 교수는

> "향락산업이 80년대에 와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5공화국의 대기업 우대정책 및 정권의 부도덕성과 직결되는 것"

이라며,

> "중소기업이 자리잡을 수 없는 여건하에서는 중소자금의 향락산업 유입은 계속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어대 최광 교수는

> "향락산업은 소득의 탄력성이 커 탈세로 인한 수익이 아니더라도 성장할 소지가 크다."

며,

> "고질화된 향락업소의 탈세를 막는 것과 함께, 투전기, 터키탕등의 특별소비세가 1백%인데 비해 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 등은 10%에 불과하고, 안마시술소·디스코텍은 전혀 특별소비세가 없는 등의 불합리한 세법도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41]

---

41) "향락산업 갈수록 번창," 한겨레신문, 1988.11.16, p.2.

또한 한해 5억달러가 넘는 관광수입은 분명히 외화 가득률면에서 타분야의 수입보다 월등이 우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관광산업의 성장이면에는 섹스관광[42]을 통하여 달러를 고스란이 벌어들이는 여성들의 눈물어린 희생이 뒷받침 되었다는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사실 칼라T·V 100대를 판 순이익보다 윤락여성 한명이밤새 벌어들이는 달러가 더 많다면,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에서 오는 경제적인 손실을 이땅의 여성들의 육탄공격으로 메꿀수 밖에 없다면, 그리고 공창지대를 폐지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성범죄가 공창지대가 있을때 보다 더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킨다면 굳이 정부도 공창지대를 불허한 이유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현실악이 존재하고 있는한 공창지대와 윤락여성들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잘못된 소비패턴과 쉽게 부를 축적하려는 자본주의적 발상이 정권과 결탁하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비인간화 작업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을 볼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개혁과 더불어 구조적인 모순을 정화시켜야만 치유가 가능하다고 본다.

---

42) 강견실, "매춘관광과 한국여자," 샘이 깊은 물은, 1988년 11월호, pp.70~72.

Ⅳ. 社會學的 考察

A. 社 會 構 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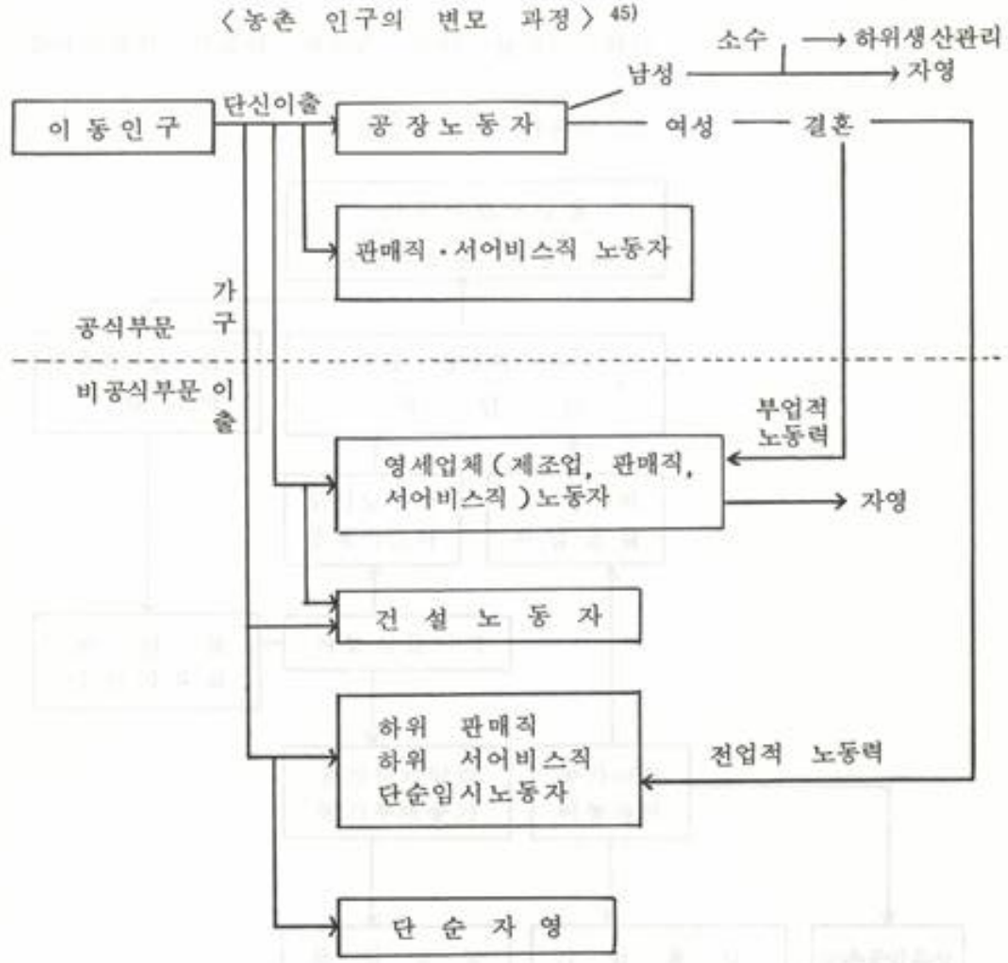
우리나라 총경제활동 인구 중 38.4%에 해당하는 578만8천명의 여성이 현재(1985년 기준) 취업하고 있는데 이들중 전국의 5인이상 고용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총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5분의1에 해당하고 압도적으로 미혼이 많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인 부문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활동 참여 여성의 주된 부문은 농촌여성들이다. 즉 이들은 산업화이후 이루어진 영세농의 활동과 청년층의 도시유출을 메워주는 근본적으로는 독점자본에 예속화된 노동력이다.[43] 여성노동자와 농촌 여성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도시빈민 여성이다. 여성 노동자는 66.1%가 농촌 출신이고 군·소도시 및 농촌 출신이 합해서 91.5%를 점하며, 나머지 8.5%가 대도시 출신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 가난한 농민의 딸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44]

---

43)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한국의 가난한 여성에 관한 연구," (서울 : 민중사, 1983), p. 24.

44) 한국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 op.cit., p.22.

〈농촌 인구의 변모 과정〉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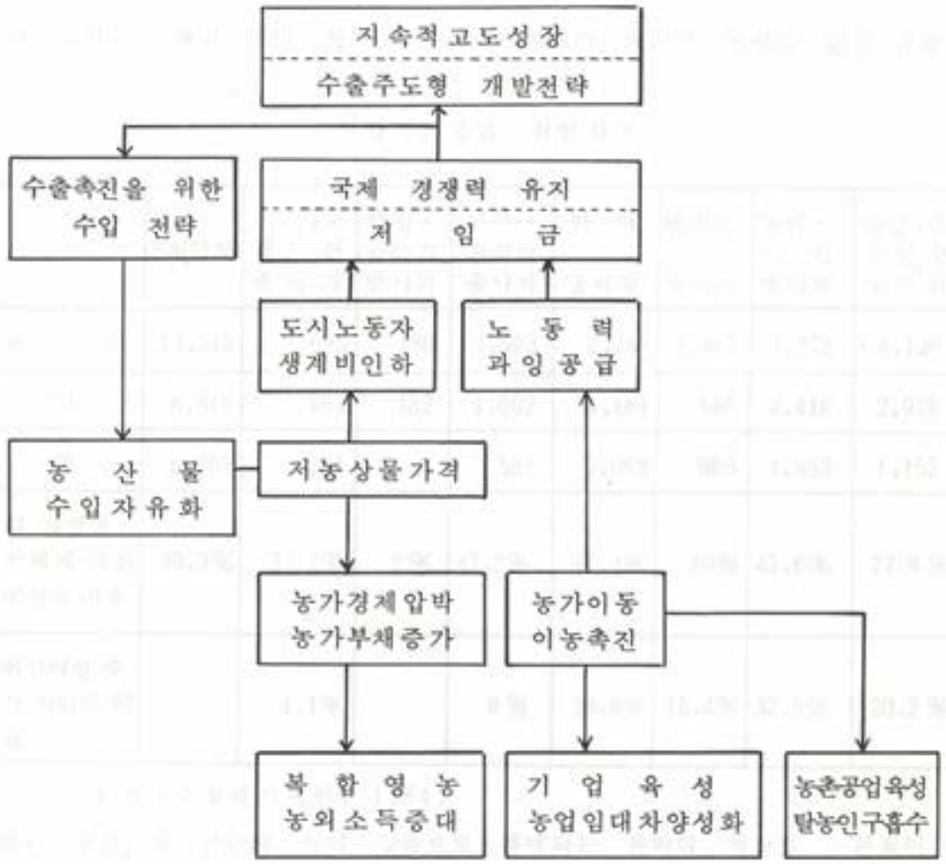


즉, 빈농출신의 어린 여성들이 도시의 공장 노동에 일시적으로 흡수 되었다가 결혼 후에 다시 빈농, 도시빈민의 아내가 되는 과정이 하층내부에서 거의 공식화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하

45) 김진균, 조희연, "한국사회의 하층계급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의 계급 연구(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86), p.151.

중여성들의 계급적 상승은 거의 불가능 하다.

〈개방농정의 기본구조〉 46)



46) 강원돈, "신학적 해석학의 새로운 모색—민중문화운동의 민중 신학적 수용," 신학사상 53 집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86), p.268.

노동부의 1983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급여액은 135,638원으로 되어 있고 이는 남자노동자 월급의 46.8%에 해당된다.[47]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적다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여성의 삶을 규정

〈직업별, 성별 취업자〉

	총취업자	전문기술 관련 종사자	행정·관리직 종사자	사무·관리직 종사자	판매 종사자	써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생산·운수단순노무자
총수	14,515	695	186	1,523	2,242	1,467	4,272	4,130
남	8,812	464	182	1,002	1,181	587	2,419	2,978
여	5,703	231	4	521	1,062	880	1,853	1,152
각 직업별 전체에 대한 여성의 비율	39.3%	33.2%	2%	47.2%	47.4%	60%	43.6%	27.9%
취업여성 중 각 직업별 비율		4.1%		9%	18.6%	15.4%	32.5%	20.2%

(자료 : 경제기획원, 1984)

하는 조건, 즉 인간의 성이 상품으로 매매되는 윤락의 제도적 본질이 규명된다. 즉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들이 윤락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윤락 또는 남성위주의 왜곡된 경제활동의 하나인만큼 그 수요,

---

47) 여성 유권자 연맹,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1980.6), p.49.

공급관계가 재생산되는 일정한 사회적, 역사적, 조건들이 있다.

윤락의 수요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가부장적사회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가부장적 독재 이념은 가정의 유지를 위해 순결한 여성을 요구하며 반대로 남성의 성적충족을 위해 윤락여성을 필요로 한다.[48] 현 사회에서 윤락은 결혼의 직접적 상관물로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이념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사회제도의 산물이며 이것은 사유재산이 발생한 이래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의 역사와 그 존립을 함께 해왔다. 이와 더불어 윤락의 이러한 수요에 대한 공급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윤락여성의 대다수는 빈곤과 궁핍에 시달리는 하층으로 부터 충원되며 직업의 부족이나 저임금으로 인해 노동여성이 윤락여성으로 전환되는 것이

농가 인구별 가구의 변화추세 (단위 : 천명, 천가구, %)

년 도	총 인 구		농가인구	농가가구	농가인구비율
1960	24,954		14,559	2,350	58.3
1965	28,705		15,812	2,507	55.1
1970	32,241		14,422	2,483	44.7
1975	35,281		13,244	2,379	37.5
1980	38,124		10,826	2,155	28.9
1982	39,331		9,688	1,996	24.6
연평균	1960-70	2.6	−0.1	0.6	—
증가율	1970-80	1.7	−2.8	−1.4	—

자 료 : 농수산부

48) 정은희외,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문학의 현실," 여성편집위원회편, 여성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5), p. 50.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특히 한국의 현실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계층간의 불평등의 심화가 노출되고 농촌이나 도시주변 출신의 어린여성들은 공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거나 도시의 성상품 문화의 제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덧붙여 분단상황이라는 특수한 민족현실도 윤락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고 있다. 60만 군인과 4만의 미군은 윤락의 수요자로서 최우위를 차지하며 특히 이태원, 동두천등 곳곳의 미군 주둔지 근처에 형성된 기지촌은 외세에 의해 억압받는 민족현실의 상징일 뿐 아니라 강대국의 남성지배 이데올로기가 약소국가의 여성을 성적으로 수탈하는 현대판 정신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현실에서 윤락여성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민족현실, 경제적 불평등, 남성지배 이데올로기가 긴밀하게 연결됨으로써 형성된다.[49] 이러한 윤락여성의 존재는 거꾸로 남성 개개인들이 성적인 소비속에 함몰됨으로써 사회로부터 도피하고 현실의 문제로부터 탈출하는 일종의 환각제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B. 社會構造속의 非人間化

가부장제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녀간의 관계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할 보완적 대립관계이다. 사회적 의미에서 남녀관계를 바라볼때만 남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

49) Ibid., p.51.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 생물학적 관계로 본 남녀관계는 적대적 관계도 혹은 비적대적 관계도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의미에서 본 기존의 남녀관계는 설사 부차적인 대립이라 할지라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존재하며, 그리고 이 불합리한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물적기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대립은 부차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관계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이다.[50]

다음의 통계적인 수치로 보아도 여성은 구조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생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을 볼수 있다.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는 정상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남성우월정책으로 말미암아 제대로의 생활영위가 어려워진 여성들이 택한 길은 오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수단인 몸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소위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부르짖는 사람들과 또한 가난한 자, 약한 자와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들까지도 억압받는 민중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남성을 대상으로 하

---

50) 심정인, "여성운동의 방향 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여성편집위원회편, 여성(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5), p.254.

현대한국사회의 계급구성(센서스결과) (1,000명, %) [51]

구 분	1955	①1960	1966	1970	1975	1980
경제활동연령인구	13,189	15,391	16,108	18,942	21,827	24,848
경제활동인구	8,191	7,488	8,654	10,378	13,351	13,595
취 업 자	8,073	6,973	7,963	10,153	12,682	12,682
A. 자본가계급=(1)+(2)	0.8	1.2	0.9	1.0	0.9	1.2
(1) 관리자	0.7	1.1	0.7	0.9	0.7	1.0
(2) 관리직 공무원	0.10	0.14	0.15	0.16	0.15	0.18
B. 쁘띠부르조아지=(3)~(5)	86.4	②72.2	62.1	④59.3	⑥55.9	52.2
(3) 농촌쁘띠부르조아지	76.1	58.1	47.5	44.4	42.3	34.0
(4) 도시쁘띠부르조아지	10.0	13.1	14.2	14.1	13.0	17.6
a. 생산·운전종사자, 단순노무자	5.3	5.3	4.6	4.2	3.0	5.6
b. 판매종사자	4.3	7.1	8.6	8.1	8.0	9.2
c. 서비스종사자	0.4	0.7	1.0	1.8	2.0	2.8
(4)중 무급가족종사자	1.6	1.5	3.2	3.0	2.7	2.6
(5) 전문·기술직종사자	0.3	0.3	0.4	0.5	0.5	0.6
C. 노동자계급=(6)~(9)	12.8	③26.6	37.0	⑤39.7	⑦43.2	46.6
(6) 샐러리맨층	3.7	4.4	6.1	8.0	8.6	12.2
d. 전문·기술직종사자	1.3	1.9	2.2	2.6	2.6	3.7
e. 사무종사자	2.4	2.5	3.9	5.4	6.0	8.5
(7) 생산적 노동자층	5.7	10.5	17.7	22.2	22.8	21.7
f. 농림어업종사자	2.5	3.5	4.8	5.2	4.1	1.1
g. 생산·운전종사자, 단순노무자	3.2	7.0	12.9	17.0	18.7	20.6
(8) 불생산적 노동자층	2.0	4.7	5.2	6.8	6.1	6.0
h. 판매종사자	0.3	0.6	1.3	2.0	2.0	2.2
i. 서비스종사자	1.7	4.1	3.9	4.8	4.1	3.8
(9) 실 업 자	1.4	6.9	8.0	2.2	5.0	6.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비고 : ① 1960년의 센서스보고서에는 서비스직종사자에 영외 거주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표에서는 제외시켜 계산. ②직업미상 0.7포함. ③미상 0.1포함. ④직업분류불능 0.3포함. ⑤분류불능 0.5포함. ⑥직업분류불능 0.1포함. ⑦분류불능 0.7포함.

51) 김남철, "한국 민중론," 로고스 제 24집(서울 : 장로회 신학대학 학우회, 1988), p.125.

한국여성노동력의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별 구성(1,000인, %)

구 분	1963	1967	1971	1975	1980	1981
경제활동인구	2,881	3,331	3,734	4,456	5,434	5,496
경제활동참가율	36.3	36.8	38.5	39.6	41.5	41.1
취 업 자	2,674	3,151	3,613	4,341	5,243	5,361
A. 관리직종사자	0.3	0.09	0.03	0.04	0.17	0.07
B. 자영업종사자	72.2	71.5	70.2	68.4	58.3	59.3
(1) 농림어업종사자	56.9	52.7	46.5	45.8	33.1	34.3
(2) 비농림어업종사자	15.1	18.7	23.2	22.3	24.4	24.3
a. 생산·운전종사자,단순노무자	2.3	4.0	6.1	5.7	5.0	4.2
b. 판매종사자	11.5	13.4	12.7	12.8	14.2	14.3
c. 서비스직종사자	1.3	1.3	4.4	3.8	5.2	5.8
(2)중 가족종사자	5.3	7.7	9.3	8.8	10.0	10.2
(3) 전문·기술직종사자	0.2	0.2	0.5	0.3	0.8	0.7
C. 피 고 용 자	20.3	22.9	27.7	29.0	38.0	38.1
(4) 샐러리맨층	2.5	2.7	5.0	5.1	9.8	10.1
d. 전문·기술직종사자	1.4	1.3	2.1	1.6	2.5	2.6
e. 사무종사자	1.1	1.4	2.9	3.5	7.3	7.5
(5) 생산적노동자층	12.3	13.5	12.9	15.7	19.7	18.8
f. 농림어업종사자	6.7	5.7	6.9	4.8	4.4	3.7
g. 생산·운전종사자, 단순노무자	5.6	7.8	6.0	10.9	15.3	15.1
(6) 불생산적노동자층	5.5	6.7	9.8	8.2	8.5	9.2
h. 판매종사자	0.5	1.1	1.5	1.1	2.1	2.4
i. 써비스직종사자	5.0	5.6	8.3	7.1	6.4	6.8
D. 실 업 자	7.2	5.4	2.1	2.6	3.5	2.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 통계연감 각년도에서 작성)

고있다. 즉 억압받는 남성, 가난하고 고통받는 남성과 지배하는 남성간의 권력 재분배를 놓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하는 남성 밑에서 억압받는 여성, 마찬가지로 억압받는 남성민중 밑에, 또 억압받는 여성민중, 다시 말해서 지금의 사회체제로는 여성은 부르조아 남성집단과 프로레타리아 남성집단 모두에게서 수난을 당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런 사회구조 속의 비인간화 작업을 결국 우리모든 사회의 각 분야를 혼란시키고 있다. 지금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창가는 폭행, 감금, 고문, 납치등이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 사창가마다 감시조가 있어 여성의 모든 사생활 및 도주를 막고 있으며, 경찰조직을 능가하는 인신매매인들에 의해 몇 명의 여성이 생명을 잃어도 아무런 소문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남성 이념에서 발생한 비인간화 작업의 유산이라고 볼수 있다. 이런 비인간화는 또한 해외입양이라는 비극을 낳게 되었다. 보사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50년이후 작년말까지 해외입양된 아동은 모두 11만6천2백22명. 이 가운데 7만3천4백7명이 미국에 입양,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또 프랑스가 9천6백72명으로 두번째로 많으며, 스웨덴 7천3백10명, 덴마크 7천1백90명 등이다. 미국과 유럽지역에 9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해외입양의 증가추세는 60년대와 비교해 볼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6·25 전쟁고아들이 양산됐던 60년대 10년간의 해외입양아동이 7천8백85명에 불과하던 것이 80년대 들어 88년말까지는 6만2천3백12명을 기록, 8배나

늘었다. 이에반해 국내입양은 저조하기 짝이 없다. 지난 80년 이후 지난해말까지의 국내입양아동은 2만7천1백29명에 불과, 해외입양아동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특히 8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연간 3천명선을 웃돌던 입양숫자가 85년부터 뚝떨어져 지난해에는 2천3백24명에 불과했다. 보사부나 해외입양 알선기관에선 이처럼 국내입양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계 승계 관습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52]

이런 사회구조속의 비인간화 작업이야말로 사회를 혼란과 쾌락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임을 바로 알수 있다.

---

52) "한국 아기 입양 경쟁," 조선일보, 1989.2.12, p.2.

V. 神學的 考察

A. 聖經과 女性

성 구별은 인간성 본질의 문제이다. 이것은 원초적 질서 (Primeval order)로 나타나며(창 1:27, 2:18),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성이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창 3:16) 성 구별은 일정하게 지속되었다.[53] 모든 인간실존의 근본적 구조, 다시 말해서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인간실존, 즉 그는 너(Thou)라는 관계에서 너(Thou)로서 그 존재가 정의되는 사실때문에 성구별의 상징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54]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בְּרֵאשִׁית בָּרָא)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구성적인 특성을 비유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다. 동시에 이 창조행위의 이유와 목적은 동료 인간성의 존재(Mitmenchlichkeit)로 창조주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지적해 준다. 인간창조 이외의 창조사역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만족스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들이 "좋다(כִּי־טוֹב)"고 하셨다. 그러나 인간창조에 관해서

---

53) 여기서 말하는 성구별은 인간화 차원에서의 성구별을 의미한다. 결코 불평등 관계에서의 차별적 성 구별을 의미하지 않는다.

54) 결국 인간 실존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은 너(Thou)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의 몸속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서로의 동등성을 부여받은 인간성의 개념이며 Thou 없이 나(I)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만큼은 "좋지 않다(לֹא־טוֹב)"라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셨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אֶעֱשֶׂה לּוֹ עֵזֶר כְּנֶגְדּוֹ וַיֹּאמֶר יְהוָה אֱלֹהִים לֹא־טוֹב הֱיוֹת הָאָדָם לְבַדּוֹ)(창 2:18)" 라고 하셨다. 이 말은 혼자 있는 아담은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다.

(The solitary Adam is not yet "man"; he is still not the fulfillment of the creation of man.)그러므로 아담은 아직도 인간창조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인간창조를 위해 여성은 남성을 "돕는 자(עֵזֶר כְּנֶגְדּוֹ)"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는 고린도후서 1:24에 언급된 동역자(fellow worker)의 관념과 동일한 동반자(partnership)라는 의미이다.[55] 다시말해서 아담과 필적할만하고, 또한 그에게 적합한, 그리고 아담과 동등한 파트너는 오직 이브(여성)밖에는 없었다는 말이다. 즉, 두 종류의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질자체가 남성과 여성이라고 볼수 있다. 다시말해 인간 존재의 병존(coexistence)이 아니라 인간본질인 양극성(Polarity)으로써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후속적 차원에서 서로를 발견하지 않고 오히려 선차원적인 면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상대가 되는 것이다.[56] 그

---

55) Helmut Thielicke, Theological Ethics.vol.3. michigan: W.B.Eedmans Publishing Co, 1979), p.4.

56) 서로의 상대란 의미는 동등권을 가진 인간성이라는 의미이다.

러므로 결혼은 타락이전의 제도로서 남·녀간에 서로 돕고(창 2:18) 서로를 위하여(창 2:21·22) 상대방 안에서 자신을 깨달으면서(창 2:23) 남녀의 정체를 잃지 않고 양극성을 이루는 것이다.[57]

우리가 보통 Imago Dei 라고 말할때 우리의 피조성(creaturehood)의 의미에서와 기독론적 의미에서 인간은 창조주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unmediated relationship)임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관계는 곧 계급적 차별주의를 배격한다. 창조기사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계급적인 구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즉, "창조"의 언급에서 어떤 가치차별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둘다 창조주와 그의 행위에 대해서 동등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더우기 둘다 함께 이땅을 정복하라는 명령 뿐 아니라(창 1:28f), 축복을 동시에 받고 있다.(창1:28) 우리는 종종 타락기사를 통해 결정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말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עִצְּבוֹנֵךְ וְהֵרֹנֵךְ בְּעֶצֶב תֵּלְדִי בָנִים וְאֶל־אִישֵׁךְ תְּשׁוּקָתֵךְ וְהוּא יִמְשָׁל־בָּךְ׃ אֶל־הָאִשָּׁה אָמַר הַרְבָּה אַרְבֶּה (창 3:16)"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서곡(prognostic curse)이라는 사실이 그 평행 귀절을 볼때 분명하다.[58] 그러기때문에 복음서의 예수는 이러한 창조질서 안에서 여성을 한 인간으로 대했다. 예수가 여성을 만

57) 맹용길, 기독교 윤리학 입문(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6), p.116.

58) Ibid., p.16.

났을 때마다 예수는 여성이 본래 하나님의 창조안에 있고 존중되어야할 인격체임을 나타내는 언어와 행동을 취하셨다. 예수는 타락기사에서 말하는 혼란된 관계 이전의 단계를 말씀하고 계셨다. 그 당시의 남성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대주의는 이러한 예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배척하고 탄압하였다. 예수의 반사회적인 행동은 간음한 여인에게까지 적용되었다. 해방자 예수는 간음한 여인을 질타하는 당시의 교권적 유대주의에 대해 "너희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ὁ ἀναμαρτητος ὑμῶν πρῶτος ἐπ' αὐτην βαλετω λίθον)" (요 8:7)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 δὲ εἶπεν⌉· οὐδείς, κύριε. ⌈εἶπεν δὲ ὁ Ἰησοῦς⌉· οὐδὲ ἐγώ σε κατακρίνω· ⌈πορεύου, ⌈¹[καὶ] ἀπὸ τοῦ νῦ μηκέτι ἁμάρτανε⌉.)" (요 8:11)라고 말씀 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 당시 여성의 제도적, 구조적 소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여자의 동등성과 하나님이 만드신 남녀의 결속성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지도자였던 바울에게서도 나타난다. 언뜻 보기에 바울은 남성은 여성의 머리라는 반복된 진술을 하는 것같이 보인다.(고전 11:3, 엡 5:23)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서와 복음선교에 나타난 중심내용에는 바울은 남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한것과 같이 똑같은 비중으로 여자들에게도 그러하였다. 더우기 그는 유대의 일반적인 남성들이 가졌던 태도를 버리고 도리어 존경심을 가지고 여자들을 인정해 주

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유럽에 들어갈때 먼저 여자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적지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였다. (사도행전 17장 4절) 바울서신에서도 이러한 사상은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16:1-15, 16:1-2) 특히 16장 3절 이하에서는 브리스가(Prisca) 이름이 그남편 아굴라(Aquila)보다 먼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는 성적차별이 없었다. 그는 하나의 "동역자"로써 이해 하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해 하였다. 그렇다면 왜 바울서신에 나타난 몇몇 귀절들이 오늘날까지 여성지위를 남성에게 종속시키도록 인용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1장이하에 나오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의미를 Kittel은 존재론적인 뜻에서 한 인간이 그존재 할수 있는 근거위에 오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였다.[59] 결국 "머리"라는 의미는 지배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창조질서(order of creation)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7절에서도 창세기 2장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로부터 지음 받았으니 이것은 남자의 영광(glory), 혹은 남자의 현시(manifestation)라고 하였다. 반드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지으셨기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고 남자를 재료(Source)로 삼아서 여자를 지

---

59) "One who stand over another in the sense of being the ground of his begin", quoted in Gerhard Kittel & G.Friedric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 : Eerdmans, vol.Ⅲ, 1965), p.679.

었기에 여자는 남자들 편에서는 영광이란 것이다. 더우기 유의할점은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인것 같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논리적으로 보아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라고 하여야 겠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외형적인 머리에 쓰는 구별이 남성우위로 해석 될수 없고 다만 창조의 질서를 예로 들어 공중예배의 질서를 가르치려는 것이었다.[60]

이런 관점에서 성의 본질과 의미를 본다면,[61]

① 성은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신 것이다.

② 성은 남과여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③ 성은 그 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완성을 향하여 협력을 구하는 인간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④ 공평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성이 일반적인 쾌락의 표현이 아니다. 또한 힘의 우위에선 수직적 공동체도 아니다. 양성의 일치의 힘이 공동생활 건설에 반영되어야 한다.

결국 성경은 남녀 역할의 사회적 차이와 이에 관련된 악습앞에 Imago Dei와 Coram Deo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가부장제도에 대항하여 인간존엄성 문제와 인간동등성 문제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다.

---

60) 김이봉, 여성신학(서울 : 도서출판 양서각, 1985), p.72.

61) 맹용길, 현대인과 윤리(서울 : 기독교문사, 1987), pp. 301~312.

B. 基督敎 倫理學的 接近

바네트(Henlee H.Barnette)는 그의 저서에서 왜 기독교 윤리를 연구하는가 하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첫째,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 도덕적 결단을 내리도록 강요 당하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갈등속에서 모든 가능한 윤리적 통찰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둘째, 기독교인은 윤리적인 이론상의 일반적인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윤리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 사람 자신의 도덕적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

넷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학적인 것 만큼 또한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공부해야 한다.[62]

그는 아무도 복음의 윤리적인 내용을 이해함과 강조함이 없이는 기독교를 적합하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는 신앙적인 동시에 윤리적인 종교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2천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규범을 통하여 신학적인, 신앙적인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기독교 윤리는 넓게는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라는 용어로 나누어진다. 목적론적 윤리는 인간의 목표 혹은 종말에 관

---

62) Henlee H.Barnette, Introducing Christian Ethics, 최봉기역, 기독교 윤리학 개론(대전 : 침례신학대학 출판부,1988), pp.37 — 38.

한 문제와 더불어 시작한다. 이와같은 범주 속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인간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등이 인간의 윤리적 목표의 자리에 앉게 된다.

반면에 의무론적 윤리는 순종의 윤리이다. 이 방법을 따르는 신학자들은 윤리 속에서 인간의 목표 보다 하나님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윤리이다. 의무론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대충 두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성경적 문자주의와 형식적 윤리주의자들이다. 전자는 성경을 윤리를 위한 규범서로 만드는 가운데 도덕 이라는 문자화된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후자는 계시된 윤리적 명령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 이웃 사랑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바네트는 기독교 윤리를 성격상 의무론적이기도 하고 목적론적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63]

그렇다면 전통적인 자연법과 도덕법의 관점에서 윤락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정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틀림없이 율법주의자(Legalism)들은 몸을 더럽힌 여성(혹은 남성)을 단호히 정죄하겠다고 할 것이고, 언급할 가치 조차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도덕폐기론자(antinomianism)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피력할 것이다. 사실 기

---

63) Ibid., p.32.

그는 계속해서 윤락행위는 고대 노예제도의 잔재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윤락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결단코 우리들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공창제도를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게 볼 수 없다. 음행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권능이 있을 때라야만 비로소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 여기에 신앙의 결정적인 시련이 있는 것이다. 간단하지만 문제는 다음의 것에 달려 있다. 즉 이러한 퇴폐적인 인간에게 던져 줄 수 있는 구원의 밧줄이 있는가 없는가 이다.[66]

그는 결국 윤락행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접하는 순결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와의 사이에 있는 세력의 문제로 결론을 맺었다.[67]

이러한 그의 생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 설 수 없는 보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사실 많은 윤리학자들은 윤락의 정죄성을 부각 시키면서 그 이면의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모순에 대하여는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부각되는 문제에 대해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도덕론만을 강조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헬무트 틸리케 (Helmut Thielicke)의 성윤리학은 출발점이 독특하다. 그는 성경적인 인간학을 중심으로 하여 Eros

---

66) Ibid., p. 204.
67) Ibid., p. 205.

와 Agape의 상호관련성을 논하면서 Eros영역에서의 생물학적 본성과 사회학적 인격의 상호연관성에서 부여되는 문제점을 논하였다. 즉, 그가 보는 성윤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결국 인간의 비인간화를 통한 창조 본래의 뜻과 다르게 변질된 현실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잘못된 육체적 관계는 남녀간의 창조 질서의 파괴로 부터 시작되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인간의 비인간화는 가속 되었고 결국 비윤리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인간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성 공동체는 두 인간 사이의 연결이고 또한 인격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서로의 지위가 동등하게 부여 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성욕은 상대방의 인간성을 고려하지 않고(완전한 의미에서 사랑하지 않고) 혼외의 상태에서 행해지며, 어버이 됨의 수락을 거부할 때 그 근본적인 본질은 상실된다고 주장하였다.[68]

그러므로 이러한 그의 생각에서는 근본을 다루었으면서도 결론은 보수적인 윤리관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구적인 윤리학을 배제하고 토착적인 제 4의 윤리학을 제창한 맹용길은 그의 저서에서,

---

68) Helmut Thielicke, op.cit., pp.11-34.

"성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관계에 관련되므로 폭넓은 통합적 이해를 통하여 성교육을 포함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69]

라고 말하면서 통합적인 윤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윤리학이 주관성을 많이 강조했다고 한다면 통합적인 윤리학은 보다 포괄적이요, 포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

우리는 기독교 윤리학이 규범적 성격을 띠면서도 삶의 현장에 깊이 개입하는(Involve) 실천적인 성격을 동시에 드러내는 학문임을 감안할 때 윤락행위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극소화시키거나 정죄적 차원에서 율법화 시킨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는 맹용길의 통합적 윤리 이해는 문제의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성 윤리는 창조자의 절대적인 진리 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윤락행위 문제는 도저히 논할 가치 조차 없는 죄악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윤리관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접근이 요구되고

69) 맹용길, 제 4의 윤리 (서울 : 성광문화사, 1985), p.291.

있는 것인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윤리적 공리들(Ethical maxims)과 그 공동체의 완전한 결단을 요하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반대와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상황윤리(Situation Ethics)적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상황윤리는 자연법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성을 도덕 판단의 도구로 인정하는 점이다. 상황윤리는 필요에 따라 계시를 규범의 원천으로 받아 들이기는 하나 반면에 이웃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 가지 계명 외에는 모든 것을 배격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상황적 윤리는 율법주의와 반도덕론자 사이에 위치한 윤리적 방법이다.[70]

기독교적 상황주의(Christian Situationism)는 다음과 같은 전개 과정을 밟는 방법론이라 말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에서 유일하고도 하나 밖에 없는 법은 아가페이다.

둘째, 그 사랑으로 부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일반적인 규칙을 내포한 교회와 문화의 지혜(Sophia)를 유출해 낸다.

셋째, 책임적 자아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혜가 사랑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결단의 순간(Kairos)으

---

70) 고재식, 기독교 윤리학 방법론(서울 :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5), p.248.

로 나아 간다.[71]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방법론이 소피아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요, 도덕 폐기론자 들에게는 소피아 때문에 장애를 받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 처럼 보일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소피아를 우상화하고 도덕 폐기론자들은 소피아를 거부한다. 그러나 상황주의자는 소피아를 사용한다.

이들은 사랑 보다 못한 모든 원칙에 대해 잠정적인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특히 윤락 행위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적 선교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론이 요구되는 있는 것이다.

다음은 하나의 상황적 실예이다.

"한 나이 어린 여성이 지금 30만원에 사창가에 팔려 왔다.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찔끔 짜는 여성에게 위대하신 포주는 항상 해오던 첫번째 방법으로 어린 여성을 폭행, 협박하고 고문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뺄이군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본 여성은 그 보다 한 수 높은 육체적 폭력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반쯤 죽여논 포주는 순서대로 두번째 방법으로 회유를 시작하였다. 인생이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너도 큰 부자가 되어 나갈 수 있어. —라며, 마치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듯,마치 神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 듯 얼르고, 구슬리고, 달래고 한 후 포주는 알약(환각제)를 강제로 먹이고는, 입으나 마나한 옷 한

71) Ibid., p.255.

벌을 내 주고는 그 날짜로 손님을 받게 하였다. 혹시나 도주를 우려한 포주는 도망을 가지 못하게 기둥서방을 붙여 놓았다. 한 동안 이 나이 어린 여성은 3평도 채 안 되는 방에서 소피를 보는 것 외에는 몇 달 동안 나올 수가 없었다. 유일한 희망인 창문에는 쇠창살이나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고, 하루에 보통 2-3명의 남성을 받아 들여야 했다. 그녀가 그나마도 건물 주위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넉 달이 지난 후 였다. 그녀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깡소주를 입에 대며 병나발을 불기 시작 하였으며(한 병을 그대로 마셨다는 이야기)욕지거리가 일상어가 되었다. 그녀 자신에 대한 압박과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러던중 그녀는 문득 이곳을 탈출하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날 밤 손님을 받은 체하다가 갑자기 손님과 함께 탈출을 시도하였다. 그러자 곧 바로 사창가에는 비상이 걸렸고, 즉각 5분 대기조가 출동하였고, 전국의 모든 빨이군에게 지명 수배령이 사진과 상금과 함께 내려졌다. 그들은 일사분란하게 몇 조로 나뉘어 한 조는 미리 알고 있던 그녀의 집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한 조는 다방을, 또 한 조는 다른 접객업소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일주일만에 그녀는 체포되어 다시 본거지로 압송되어 왔다. 악에 바친 포주는 다시는 도망을 못가게 한다면서 아직도 어린여성의 몸을 빨갛게 달군 연탄 집게를 가지고 팔, 다리 가릴 것 없이 지지기 시작하였다. 주위에 있던 다른 여성들은 한 마디 항변도 못하고 눈물마저 잊은 채 몸을 떨고 있었고, 어린 여성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살갗이 타는 냄새만 이 곳 사창가를 진동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윤리학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인가?

율법주의자들 편에서 보면 윤락여성 자신을 먼저 정죄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인물들을 정죄하기 바쁠 것이다. 만약 자신이 복음주의자라고 할 지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구조적인 문제만을 들고 나오면서 정작 윤락여성 자신의 문제에는 소홀히 할 것이다. 엄격한 도덕신학 쪽에서 보면 모두 다 정죄받을 사람 뿐이다. 이론적인 윤리학에서는 모두 거부 반응 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선교적 차원에 있어서 윤리학은 상황적 아가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 여성의 윤락행위 자체는 정죄의 대상이 될수 없다.

따라서 모든 윤락 행위가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지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윤락은 비 인간화 되어 있는 우리들의 사고 가운데 내재 되어 있고, 내재된 인간이 신의 이름을 빌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마음 속에 품은 자도 이미 간음자라고 말씀하셨다. 일생에 있어서 조그마한 음욕을 한 번도 안 품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결국 대다수 인간들은 윤락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정죄함 보다는 주변에 눈을 돌려 이러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 문제를 논해야 할 것이다. 그녀가 당장 처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선적인 선은 윤락이고, 최고

의 선은 탈출이고, 그리고 최악의 선은 죽음이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셋 모두 똑같은 선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상황적 아가페라는 논리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다.

이들을 선교함에 있어서 율법주의자가 된다면 그들이 설곳이 없어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삶의 현장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해 된 공동체 안에서 근본 진리를 깨닫게 하여 다시금 창조 본래의 질서대로 환원시켜 주는 것 뿐이다.

우리는 상황적 접근방법(Contextual approach)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적 선포를 시도하며 의식화된 개혁 속에서 규범적 텍스트를 적용하며, 그리고 성화된 삶의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를 중요시하고 가르치는 윤리 옹호론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원리와 상황은 배타적인 윤리적 방법론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현실을 율법의 틀에 맞출려고 노력하는 이론윤리를 지향하고 이제는 원리를 가지고 현실 속에 적용하는 윤리적 신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단순하거나 하나 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고 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Ⅵ. 淪落女性의 종합적 보고서

본 연구자는 1988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K·T·C.-(Korean Testing Center)의 도움을 받아 가장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① 사회구조적인 모순 분석(여성이 淪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조사)

② 여성을 결정적으로 淪落化 시키는 人身賣買 組織의 실태와 활동 방향조사

③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구조 파악

(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문산, 의정부, 양주 : 이상 경기지역 천호동, 청량리, 영등포 : 이상 서울지역 등에 거주하는 윤락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72]

④ 자아 개념검사(Physical Self Score, moral Ethical Self Score, Personal Self Score, Family Self Score, Social Self Score : 윤락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

72) 총 62개 문항을 가지고 조사 하였으나 여기서는 55개 문항을 수록하였다.
1982년 1차 조사를 하였고 1988년 2차 조사를 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1988년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⑤ 욕구진단 검사(Need for abasement,Need for achievement,Need for affiliation,Need for Exhibitionism, Need for sex,Need for autonomy : 윤락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⑥ 간편 MMPI 성격검사(Hypochondriasis,Depression,Psychopathic,Deviate,Hysteria,pananonia,psychoathenia,Schizophrenia,Hypomania ; 동두천지역 윤락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⑦ 간편 지능(I·Q)검사(윤락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그밖에 보조기능 검사로 혈액형 검사(Cell grouping에 의한 판정), 성병조사(Treponema pallidum,Neisseria Gonorrhoeae,Herpes,AIDS)등을 조사 하였으며 서울지역 각 구청을 순방하여 접객업소의 보건상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위해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았고, 자문을 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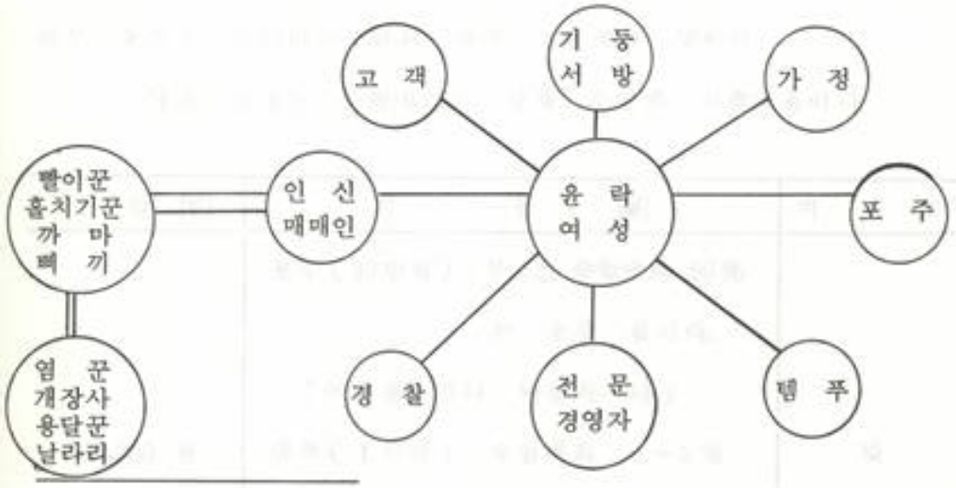
A. 人身賣買 조직과 論落

"부천에서 한 인텔리 女性의 性拷問 사건을 가지고 社會가 떠들썩하고 변호인단이 구성되는 것을 보고 서글펐다. 솔직히 말해 그것이 어디 성고문인가? 아기들 장난이지 그러한 성고문은 인신매매인들에게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여기서 고통 당하는 이 땅의 수십만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왜 사회는 침묵하고 있는가? 왜 수십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는가? 이 땅의 개떡같은 민주화는 누구를 위하

여 존재 하는가? " 73)

사회에서 여성을 직접적으로 상품화 시키는 데에는 5개의 조직이 보통 관여를 한다. 바로 포주 74), 뎀푸 75), 매매꾼(빨이꾼) 76) 기둥서방 77), 전문경영자 78) 등이다.

(윤락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집단)



73) 전우섭, "여성, 그 존엄성을 위해," 드보라 창간호(서울 : 장로회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1988), p.57.

74) 윤락여성을 데리고 직접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 5~10명의 여성을 거느리고 장사를 하고 있다.

75) 손님을 유혹해와 윤락여성에게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통수입의 1~5%정도를 댓가로 받는다.(Tempter)

76) 여성에게는 가장 무서운 집단이다. "여성을 빨아 먹는다"는 뜻으로 보통 빠리꾼 혹은 빨이꾼으로 불리우며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신매매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1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인간시장"에서 여자장사를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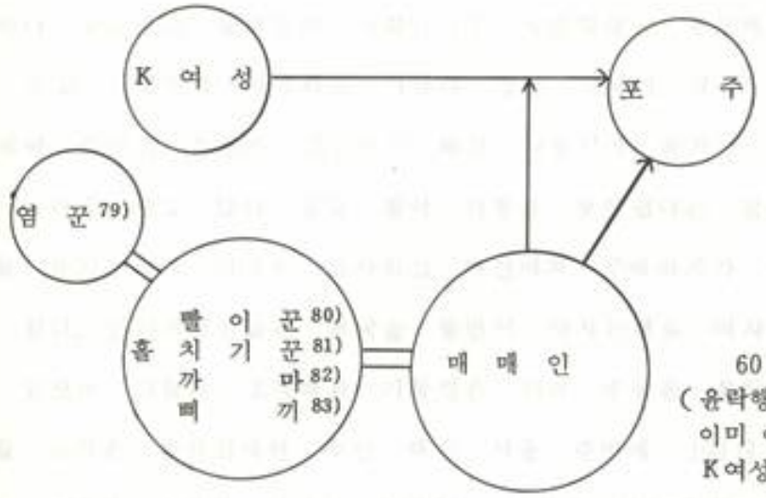
77) 여성을 감시하고 수입액의 20~30%를 갈취하는 밤낮 놀고 먹는 건달.

78) 한 CLUB를 운영한다거나 몇 개의 향락사업체를 경영하는 이른바 재벌 그룹.

이중에서 인신매매인이 가장 무섭고, 가장 조직적인 집단이다. 이들은 분야별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성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성의 값을 흥정하고 거기서 얻은 이득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 결국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하게 되고 빚만 걸머지게 되어 인간시장에서 노예로 팔리우게 되는 것이다. 보통 여성 한명당 30～80 만원 (88 년도 기준싯가)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값도 올라간다. 인신매매인 눈에는 여성이 전부 돈으로 보인다는 말은 아주 현실적인 말이다.

다음 도표는 윤락여성의 실제 수입과 지출내용이다.

수 입 (원)	지 출 (원)	비 고
600,000 원	포주 (30 만원) : 무조건 수입액의 50 % 는 포주 몫이다.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다) 뎀푸 (1 만원) : 수입액의 1～5 % 기둥서방 (10 만원) : 수입액의 20～30% 전기세, 화장품, 간식값, 옷값, 방세 약값등 (15 만원)	빚 600,000 원
잔 고	40,000 원	



60 만원에 거래
(윤락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이 돈은 고스란히
K여성의 빚으로 남음)

이것을 보면 한달 순 이익이 4 만원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자신이 진 빚을 갚는데 (실제로는 인신매매인에게 팔리운 값) 써버리면 오히려 56 만원의 빚만 남아있게 되고 자신이 그냥 쓰게되면 빚만 더욱 늘어나게 된다.(빚에는 이자가 붙는다)

---

79) 잡아온 여성을 폭력을 사용하여 자포자기의 상태로 만드는사람.

80) 유인해 내는 사람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화술이 뛰어나다.

81) 공급을 담당으로 하며 유인해낸 여성을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사람.

82) 소개만 전문적으로 하며 전국에 있는 포주와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만큼의 여성을 알선하는 일종의 중간상인.

83) 윤락행위를 유도하면서 때로는 기둥서방 또는 감시자의 역할도 담당한다.

실제로 윤락여성이 1년간을 모아도 20만원을 벌기가 힘들다. 이 얼마나 모순되고 불평등의 사회인가? 국민학생이 부모에게 용돈을 타 쓰고 나머지를 저축해도 이보다 많을 것이다. 결국 한번 이 세계에 들어간 여성은 그곳에서 빠져 나오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몸을 팔아 가정을 보살폈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정은 고사하고 자신마저 주체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인신매매인들은 전국을 돌면서 닥치는대로 여자사냥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조직력과 기동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공식집계된 것만 해도 서울 주변에 100개, 전국적으로는 200개 조직이 있다고 한다.[84] 여성을 상품화하는데 가장 큰 인간시장은 서울의 경우 청계천일대와 또한 인접한 을지로 미군보급기지 일대이다.[85] 이 일대에서는 보통 200명의 여성이 거래되고 있다. 액수로 따지면 수백에서 수천이 오고 간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열리는 이 인간시장은 서울은 물론 경기도 일대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바로 인신매매 조직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이들은 여성들의 생각과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 이들은 수요와

---

84) "르포 인신매매," 생활간호(1989.1), p.85.
경찰 발표에 따르면 87년 한해동안 모두 176건의 부녀자 유인, 납치 인신매매 사건이 적발돼 295명의 관련 범인들이 검거됐다.

85) 포주들과 윤락여성들과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알수 있다.
cf., "서울에 호스티스 7일 시장" 주간경향, 1986년 12월 14일호, pp.42-43.

공급을 위해 여성들을 닥치는대로 구해온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주간잡지를 이용한 허위 구인 광고이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자들을 곧바로 인간시장으로 보내 팔아버리는 방법이다.[86] 둘째로 봉고차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닥치는대로 납치, 폭행한 후 팔아버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영등포, 청량리 일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윤락여성과의 상담을 통해 많은수가 이런방법으로 들어왔음을 고백했다). 세번째로 잘생긴 남자를 앞세워 유혹한 후 폭행하여 팔아버리는 방법이다. (어린 10대 여성들중 상당수가 이런방법에 많이 속고 있음을 본다.) 마지막으로 자진해서 뛰어드는 여성을 상대로 장사하는 방법이다.(의외로 이런 여성이 상당수 있었다.) 아무튼 포주 H씨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거래는 매주(주로 수요일, 토요일)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조직을 능가하는 기동성과 철저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과 야합한 포주들은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돈줄을 잡고 있으며 이러한 포주들의 세력은 국회의원도 당선 혹은 낙선 시킬수 있을만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직함도 여러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지역은 현재(1988년) 정화추진 위원장, 부위원장이 현직

86) Ibid., p.44.

포주이며 여성을 비인간화 시키는 인신매매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요즈음은 인신매매인들에게 "포르노"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중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있으면 무조건 납치하여 폭행을 하고 그 장면을 비디오에 전부 담아서 미군을 상대로 팔아 먹거나 심지어 수출까지 한다. 외국인들은 소위 "프로 포르노"가 아닌 "다큐멘타리 포르노"를 가장 좋아하며 미군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포르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인신매매인들은 여성을 상대로 장사가 된다고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본 연구자가 상담을 한 K라는 여성은 이러한 포르노에 강제 출연을 했는데 마약을 먹고난 후에 담배불로 온몸을 지지는 장면을 출연해 완전히 몸이 망가져 버렸다. 이렇게 인신매매인들과 포주들은 여성을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 여성들에게 환각제를 팔아 또 부당이득을 취하고 또한 벌어들이는 돈을 갈취해 또 부당이득을 취하고 쓸모가 없게 되면 섬이나 산간벽지로 팔아 넘겨 또 부당이득을 취하고 그 여성이 결국 그 곳에서 죽게되거나 완전폐인이 되면 모아둔 나머지 돈마저 전부 차지해 또 부당이익을 취한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 "여성을 빨아먹는다"라는 뜻으로 "빨이꾼"이라고 한다.

인신매매 조직은 워낙 조직적이고, 상습적이다.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치욕적인 삶으로 전락된다는 점에서 전부 적발하여 도태시켜야 한다. 이들 조직은 그 형태가 같은 인간의 인간화를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반

반국가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반신앙적인 적 그리스도 단체이다. 이제 인신매매의 문제는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화와 함께 인신매매 집단의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간, 사회, 윤리 문제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B. 意 識 構 造

①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100 %)

서 울	20 %	경 기 도	10 %	강 원 도	5 %
부 산	10 %	전 라 북 도	15 %	충 청 남 도	3 %
대 구	5 %	전 라 남 도	9 %	충 청 북 도	3 %
광 주	5 %	경 상 북 도	5 %	제 주 도	1 %
인 천	4 %	경 상 남 도	5 %		

② 당신의 나이는 ? (100 %)

10 ~ 15 세	0.5 %	19 세	5 %	23 세	15 %	27 세	2 %
16 세	0.5 %	20 세	12 %	24 세	20 %	28 세	1.5 %
17 세	3 %	21 세	14 %	25 세	4 %	29 세이상	0.5 %
18 세	5 %	22 세	14 %	26 세	3 %		

③ 당신의 최종 학력은?

(100%)

무 학	0.2%	국 졸	2%	중 졸	10.6%	대 퇴	8%
국 퇴	0.8%	중 퇴	18%	고 퇴	25%	전문대졸	5%
				고 졸	30%	대 졸	0.4%

④ 당신의 가족 관계는?

(100%)

친 부모님이 다 있다.	50%	계모하고 친아버지가 있다.	4%
어머니만 있다.	10%	양 부모님이 있다.	6%
아버지만 있다.	8%	부모님이 별거중이다.	16%
계부하고 친어머니가 있다.	2%	부모님이 안계시다.	4%
언니가 있다.	40%	동생이 있다.	30%
오빠가 있다.	30%		

⑤ 당신의 가정생활은 어떠했습니까?

(100%)

아주 만족스러웠다.	2%	불만족 스러웠다.	75%
만족스러운 편이었다.	8%	아주 불만족 스러웠다.	15%

⑥ 가정생활 수준은 어떠했습니까?

(100%)

아주 가난했다.	5%	부유했다.	15%
가난 했다.	25%	아주 부유했다.	5%
보통이었다.	50%		

⑦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어떠했습니까? (100%)

좋 았 다	20 %	좋지 않았다.	65 %	아주 안 좋았다.	15 %

⑧ 부모님과 자신의 사이는 어떠했읍니까? (100%)

좋 았 다.	20%	좋지 않았다.	65%	아주 안 좋았다.	15%

⑨ 가족 중 누가 가장 좋았습니까? (100%)

아버지	10%	어머니	50%	언 니	8%	오 빠	2%	동 생	15%	기 타	15%

⑩ 가족 중 누가 가장 싫었으며, 결정적으로 가정을 벗어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00%)

아 버 지	78 %	언 니	1 %	동 생	2 %	없 다	7 %
어 머 니	2 %	오 빠	5 %	삼 촌	2 %	기 타	3 %

⑪ 당신이 처음 가출한 시기는 언제 였습니까? (1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1%	5%	15%	20%	16%	10%	4%	2%	2%	8%	16%

⑫ 가출 하게된 동기는? (100%)

부모와 불화	30 %	형제간 불화	2 %
친구의 유혹	40 %	무 작 정	8 %
		기 타	20 %

⑬ 직업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직업입니까?

(100%)

있 다.	60%	없 다.	40%	서어비스업	30%	경 리 직	10%
				공 장	20%	무 직	20%
				다 방	15%	기 타	5%

⑭ 처음 성교를 경험한 나이는? (100%)

10세이하	0.5%	16 세	10%	19 세	15%	22 세	2%
14세이하	0.5%	17 세	20%	20 세	15%	23세이상	4%
15 세	1%	18 세	30%	21 세	2%		

⑮ 처음 성교를 경험 했을때 상대방은 누구였습니까?

애 인	5%	친 척	5%	모르는남자	27%
약 혼 자	0%	사귀는남자	20%	불 량 배	20%
오 빠	5%	선 배	1%	아 는 사 람	10%
친 구	5%	후 배	0%	기 타	2%

⑯ 첫 성교후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즐거웠다.	0%	후회 스러웠다.	15%
죄책감 뿐이었다.	10%	모르겠다.	3%
무서웠다.	70%	기 타	2%

⑰ 첫 성교는?

강제적 이었다.	90 %	내가 원했다.	0 %	서로 반반이다.	10 %

⑱ 첫 성교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집	20 %	여 관	30 %	해수욕장	2 %	기 타	28 %
산·들	10 %	호 텔	6 %	골 목 길	4 %		

⑲ 당신은 자위행위의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10 %	없 다.	90 %

⑳ 결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5 %	없 다.	95 %

㉑ 동거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60 %	없 다.	40 %

㉒ 임신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41 %	없 다.	59 %

㉓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18 %	없 다.	82 %

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있 다.	30 %	없 다.	70 %

㉕ 성병에 걸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46 %	없 다.	54 %

㉖ 당신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때 어떤 느낌입니까?

쾌감을 느낀다.	1 %	고통 뿐이다.	50 %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14 %	쾌감과 고통이 함께 있다.	35 %

㉗ 당신과 성경험을 가진 남성은 몇명 입니까?

1 명	2 %	6 ~ 10 명	3 %	16 ~ 20 명	3 %
2 ~ 5 명	5 %	10 ~ 15 명	3 %	20 명이상	84 %

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 할 것입니까?

할 수 있 다.	50 %	잘모르겠다.	10 %
할 수 없 다.	10 %	할수도 있다.	30 %

㉙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48 %	없 다.	52 %

㉚ 어떤 방법으로 피임을 했습니까?

콘 돔	10 %	월경주기	10 %	먹는피임약	80 %	질외사정	0 %

㉛ 남성에게 배신감을 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98 %	없 다.	2 %

㉜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100 %	없 다.	0 %

㉝ 담배를 하루에 얼마큼 피웠습니까?

1갑미만	13 %	1 갑	27 %	2 갑	59 %	3갑이상	1 %

㉞ 술을 마신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100 %	없 다.	0 %

㉟ 마약이나 환각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80 %	없 다.	20 %

㊱ 술이나 마약등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괴로와서	30%	잠을잘수없어서	20 %	기분이좋으니까	6 %	세상을잊기위해	40%
중독이 되어서	1.5%	강제로먹이니까	0.5%	이유없이 마심	2 %		

㊲ 윤락을 하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50 %	유혹을 받아서	20 %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20 %
홧 김에	1 %	강제적으로	8 %	내 자신이 원해서	1 %

㊳ 학교 혹은 사회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100 %	없 다.	0 %

㊴ 동성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30 %	없 다.	70 %

㊵ 지금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7%	어 머 니	0.1%	언 니	0.2%	애 인	0.8%
동 생 생	0.9%	오 빠	1%	친 구	1%	포 주	28%
경 찰	40%	기둥서방	5%	인신매매인	15%	기 타	1%

㊶ 가정 갖기를 원하십니까?

원 한 다.	100 %	아 니 다.	0 %

㊷ 지금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 머 니	90 %	언 니	4 %	애 인	5 %	오 빠	1 %

㊸ 친구나 애인을 향해 폭력을 사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 다.	68 %	없 다.	32 %

㊹ 당신이 가장 의논해 보고싶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목 사	70 %	부 모	20 %	형 제	10 %

㊺ 본래 자신이 믿던 종교는 무엇입니까?

불 교	20 %	천 주 교	3 %	기 독 교	36 %
기 타	0.5 %	유 교	1.5 %	없 음	39 %

㊻ 현재 당신이 믿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불 교	5 %	천 주 교	2 %	기 독 교	60 %	없 음	33 %

㊼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믿겠다.	60 %	잘모르겠다.	0.8 %	종교는 좋지만 믿지않겠다.	10%
전혀 관심이 없다.	4 %	기 타	0.2 %	종교자체가 맘에안든다.	25%

㊽ 과거에 교회나 사찰을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96 %	없 다.	4 %

㊾ 교회나 사찰에서 신앙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25 %	없 다.	75 %

㊾ 교회나 사찰에서 이성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20 %	없 다.	80 %

㊿ 신(절대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 다.	20 %	있을것이다.	30 %	잘모르겠다.	5 %	없 다.	45 %

(52) 만약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 국	3 %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	7 %
지 옥	70 %	잘 모르겠다.	20 %

(53) 종교경전을 읽거나 혹은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습니까?

있 다.	10 %	가끔 있다.	0.1 %	한번 있었다.	50 %
잘모르겠다.	1.9 %	없 다.	38 %		

(54) 당신이 이 곳을 떠난다면?

윤락행위를계속하겠다.	10 %	새로운 직업을갖겠다.	30 %	가정으로 돌아가겠다.	30 %
학업을 계속 하겠다.	20 %	결혼 하겠다.	5 %	잘 모르겠다.	5 %

C. 意識構造 分析

① 우리나라의 가족제도하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진다. 일반적으로 딸은 아버지를 더 좋아하지만 한 여성이 부모님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충격을 받는가 하는 질문에서 그들 대부분은 아버지에게서 충격을 받는다고 대답했다. 즉 어머니에게서 받는 충격보다는 아버지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적으로 불행해지며 여성자신에게도 사회를 보는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가정을 싫어하고 집을 나오게된 동기가 대부분 아버지의 폭행, 술주정, 이상성격등에 기인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것은 바로 가정불화의 주요인이 바로 남성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형태에서 나온 부산물임을 알수 있다.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해서 본 대다수의 여성이 어머니에게 실망하면 그럭저럭 지내지만 아버지에게서 실망하고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가정을 등지게 된다고 대답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장 보고 싶은 대상으로 어머니를 꼽고 있다.(⑨번·㊷번항목)반면에 가장 자신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람으로 아버지를 꼽고 있다. (⑩번항목) 우리가정이 가부장적 모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한 진정한 인간화 작업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가족공동체가 깨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무관심, 불화, 별거 등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가 꺽이고 좌절된 자아의식을 통한 현실거부로 말미암아 쉽게 유혹에 넘어가 악의 구덩이로 빠져들었다고 볼수 있다.(① ~ ⑫번항목) 특히 이번 조사와 상담

을 통해서 본 그들의 심리상태를 보면 내면적으로는 남성을 거부하면서 또한 남성이 없으면 살아 갈수 없는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연령층을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나이는 점점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고 어린 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신매매인들이 밤낮으로 뛰고 있다. 따라서 처음 성교를 경험한 나이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⑭번 항목) 처음 조사한 80년대와 88년 사이에는 연령변화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진것이 여성의 저연령화이었다. 나이가 5～6세 가량이 낮아졌고, 조기 퇴역 연령도 그만큼 낮아졌다. 우리나라도 구라파처럼 10대 여성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값도 올라가고 또 오래 고용할 수 있어 포주 입장에서는 가장 금전적으로 수입이 좋기 때문이다. 미군 대상 지역 여성의 저 연령화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10대 여성을 영계라 부르며 80년 초기에는 10대 후반을 찾았으나 80년 후반기 부터는 10대 초반의 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③ 첫번 성교는 전부다 강제적 이었다고 대답 했다. (⑰번 항목) 처음 성교를 경험한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⑭번 항목) 오늘날 사회도처에서 범람하는 퇴폐 풍조와 도덕성의 결핍에 의한 향락문화의 침투라고 보아진다. 사회 윤리와 더불어 개인윤리가 무너지고 인간 신뢰성 감소에 의한 비인간화 사상이 이러한 결

과를 초래 하였다고 볼수 있다. 처음 성교를 경험한 상대방은 전혀 본적이 없는 모르는 남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만 어느 정도 안면이 있거나 혹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⑮번 항목) 이러한 통계는 위험은 멀리 있는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소도(⑱번 항목) 의외로 가정집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결국 성적인 폭행은 멀리서 부터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바른 성교육과 충동적인 남성의 성욕구에 대해 여성자신의 몸가짐도 스스로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④ 교육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어느지역에서는 상당히 고학력자가 많이 있는 반면 또 어느 지역은 상당히 낮은 학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낮은 학력을 갖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자는 상당히 포함 되어있다. 심지어 어느업소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만 받는다든지 혹은 그 이상의 학력만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③번 문항)

특히 변두리 지역을 제외한 중심가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가진 여성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어 강습을 시키는 곳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저연령화에 의해 저학력 출신이 많으며, 단순 생활을 통해 지능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⑤ 가장 집을 빠져 나가고 싶었던 욕망을 느끼는 계절이 봄 (3~5월)이며,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 가출을 하는 시기는 봄에서 초여름 사이와 (⑪번 문항) 추운 12월달인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즈음은 계절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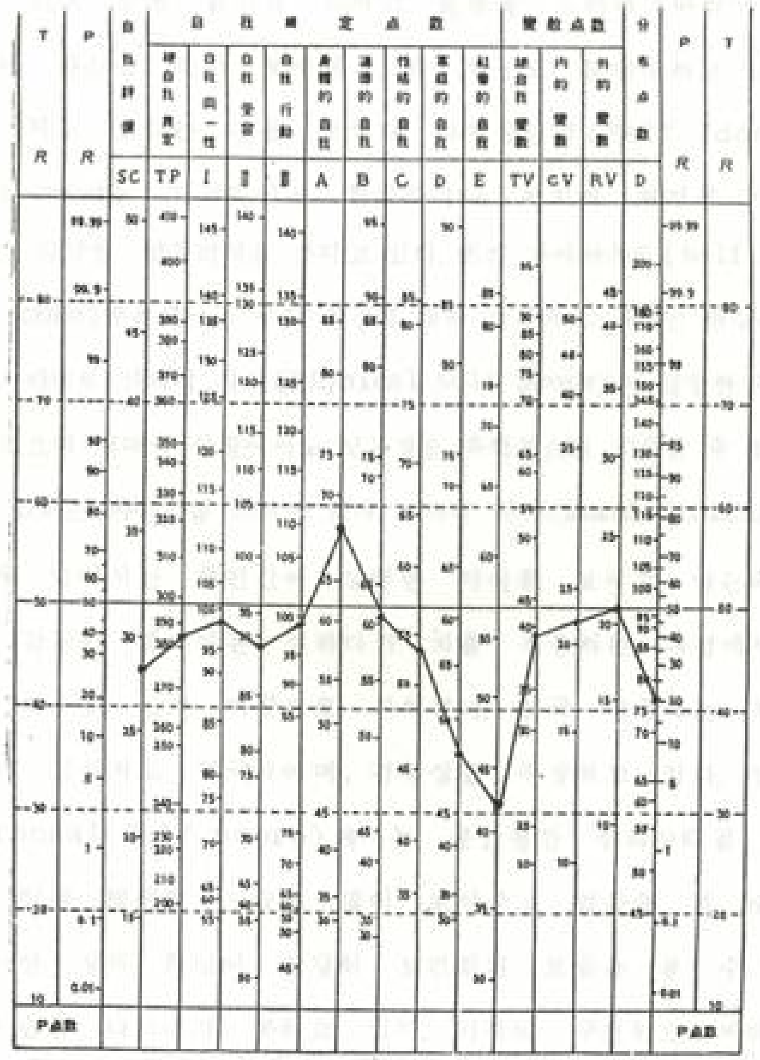
⑥ 윤락을 하게 된 동기는 아직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동기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㊼번 문항)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빈곤때문에 윤락행위를 한다는 숫자가 줄어 들고 있고 유혹 혹은 강제적인 납치등으로 인해 이런 길로 뛰어든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본다. 또한 자발적으로 뛰어든 경우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질만능과 성문란시대가 낳은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⑦ 윤락여성들은 결혼에 관계없이 가정을 무척 갖기를 원한다. (㊶번 항목) 그들은 가정을 가지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을 최고의 희망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을 느끼고는 자포자기 내지는 병적 자학을 통해 자신을 많이 학대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또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기를 무척 갖고 싶어한다.

⑧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는 경찰이 으뜸이었다. (㊹번 항목) 질문 자체가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았는데 그들 특유의 몸사림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나온 듯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격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아마 그 이유는 단속이라는 명분아래 자행되는 자신의 수

D. 자아개념 分析

평균 자아 개념 점수표[87])



87) 정원식, 자아개념검사요강 (서울 : K.T.C,1987), p.12.

자아개념을 분석하여 보면, 윤락여성들은 총 자아긍정점수 (Total positive self score)가 일반인들 보다 낮게 나옴을 볼 수 있다. 결국 자기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종종 불안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며 따라서 자기자신에 대해 자신을 갖지 못하며 그의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아동일성(Self Identity score)점수에서는 자기자신을 확대하거나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격화시키는 상당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아만족도(self satisfaction score)부분에서는 주위 환경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신체적 자아(Physical Self Score)는 상당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것을 육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이겨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 자아(moral Ethical Self score)에 있어서는 개인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인 갈등이 초기에는 심하다가 차츰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기 합리성을 띄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나중에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이 사라지고 적극적이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성격적 자아(Personal Self score)에서는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잘 반영해주고 있어 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이상 성격 현상이 상당히 보편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써의 만족감 검사(Family Self score)에서 가정에 대한 적대감이 높게 나오고 있다. 즉 가정적으로 불행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속한 가족 공동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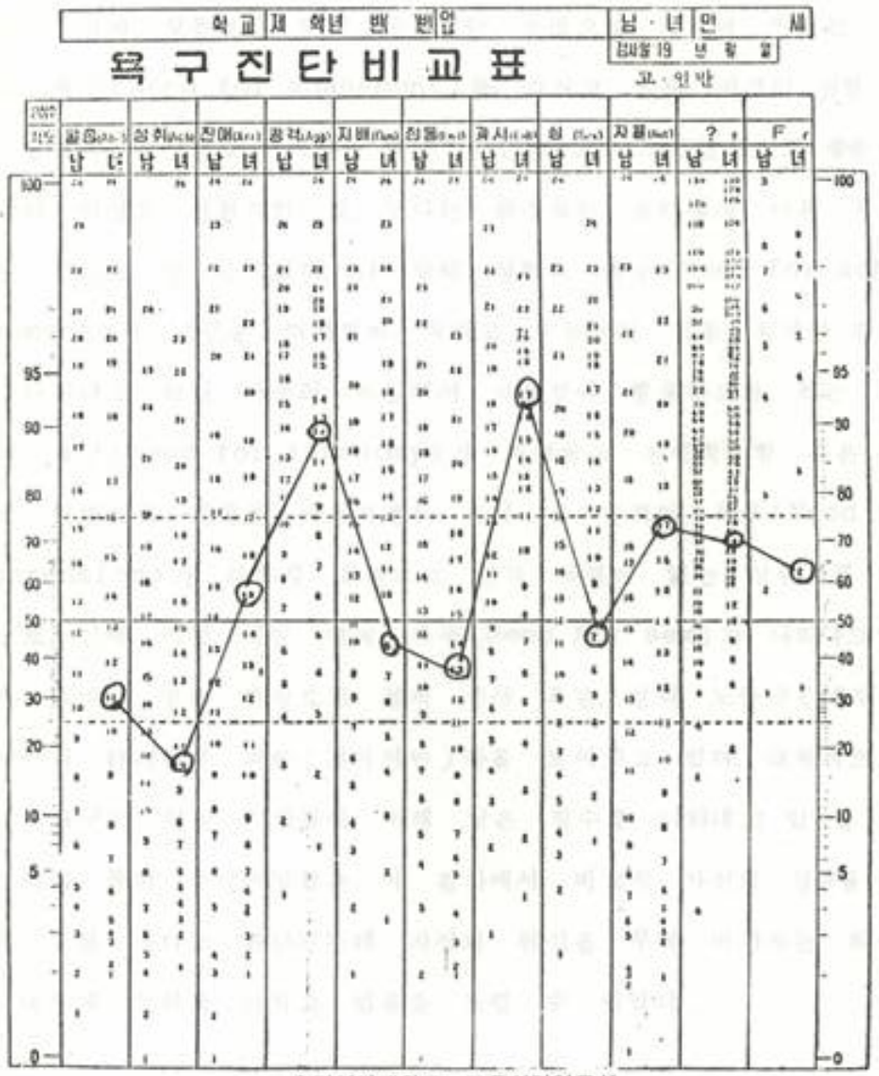
성에 비해 사회적자아 (Social Self Score)가 체념적이며,관념적이고, 현격한 피해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분포점수(Distribution Score)의 각 문항의 5등분 선택에서 극단적인 5나 1에 반응한 여성은 D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이 점수가 높게 나오면 자신에 대한 의사가 분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경계심이 많은 자아개념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윤락여성들의 자아의식은 일반여성에 비해 상당히 낮아있고 이것은 결국 사회구조적,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본래의 모습이 변질되었다고 결론 지을수 있다.

(T 점 수 표.)

원점수	Aba	Ach	Aff	Agg	Dom	Emot	Exh	Sex	Aut	원점수
24	81	70	77	85	80	71.5	77	79	75	24
23	78	68	74	83	78	69	75	77.5	73	23
22	75	65.5	71.5	80.5	76	67	73.5	76	70	22
21	72	63	69	78.5	74	65	72	74	68	21
20	69	61	66	76.5	72	63	70	72.5	66	20
19	66.5	59	64	74.5	70	61	68	71	63	19
18	64	57	61	72	68	58	66.5	69	62	18
17	61	55	59	70	66	56	65	67.5	58.5	17
16	58	53	56	68	64	54	63	66	56	16
15	55	50.5	53.5	66	62	52	61	64	54	15
14	52.5	48	51	64	60	50	60	62.5	51.5	14
13	49.5	46	48	62	57.5	47.5	58	61	49	13
12	47	44	46	60	55.5	45	56	59	47	12
11	44	42	43	58	53.5	43	54.5	57.5	44	11
10	41	40	41	56	51.5	41	53	56	42	10
9	38	38	38	54	49.5	39	51	54	39.5	9
8	35.5	36	35	52	47.5	36.5	49	52	37	8
7	32.5	33.5	33	50	45	34	47.5	51	35	7
6	30	31.5	30	48	43	32	46	49	32.5	6
5	27	29	28	46	41	30	44	47	30	5
4	24	26	25	44	39	28	42.5	46	28	4
3	21.5	25	22.5	42	37	26	41	44	25	3
2	19	23	20	40	35	23.5	39	42	23	2
1	16	21	17	38	33	21	37	41	20.5	1
0	13	19	14.5	36	31	19	36	39	18	0

(淪落女性의 평균 욕구진단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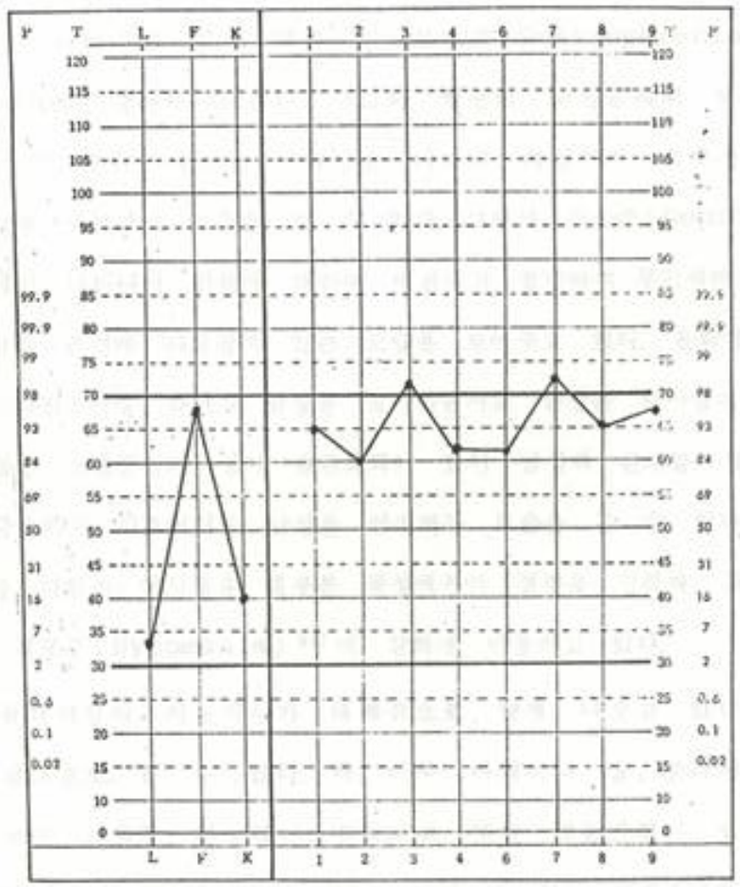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연구실

욕구진단분석에 의하면, 윤락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힘에 수동적인 복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비애, 비관, 벌을 받아들이는 것과 모든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체념해 버리는 굴종의 욕구(Need for abasement)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심한 경우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 마조키즘(Masochism)현상으로 종종 나타난다. 이것은 선천적인 것 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서 나온 후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성취의 욕구(Need for achievement)가 대부분 퇴색되어 버리고 수동적인 적응 욕구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독립해서 자유로이 행동하고자 하는 자율적 욕구(Need for autonomy)가 퇴색되고 신체적 힘 혹은 물리적 방법으로 반대를 극복하려는 자세 즉, 공격의 욕구(Need for aggression)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애정이 없는 성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성의 욕구(Need for sex)가 나타나고있으며, 가벼운 병적 현상으로 성적 공상 혹은 성적 노출증(대부분 마약이나 환각제에 의한 것이지만)등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모든 욕구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윤락여성들은 이 검사에서 비교적 자신의 심정을 솔직히 표현 했다고 판단되는데 자신의 현실을 무척 비관하는 의식을 내부에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F.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分析.[89]

(평균MMPI 비교표.)[90]



89) 진위교, 김형립, 간편MMPI성격검사 실시요강(서울 : K·T·C, 1987), p.38.

90) 이 검사표는 동두천지역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적으로 T점수가 높게 나오며 반대로 K점수는 낮게 나온다. 신경질환 계통의 병에 대부분 걸려 있으며, 약물 등에 의해 정신적 이상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검사에는 간편MMPI 성격검사가 사용되었다.

정신신경증적 경향, 정신병적징후, 반사회적 성격등을 측정하는 이 검사에서 윤락여성들은 일반여성들에 비해 현실에 냉담 무관심하고 여러가지 행동에서 환각, 병적사고와 행동의 전후 모순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일명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증세가 대체적으로 강하게 나온다. 사고와 행동의 과잉증세와 정서적 흥분이 높으며, 모든 사고에 비약성을 나타내 여러가지 육체적,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Depression)증세가 나타나서 인생에 대하여 비관하고 절망하며 무기력해지고 죽음과 자살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윤락여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남성을 싫어하면서도 남성을 받아들이고, 성적인 고통만 느낄뿐인데 성이 습관화되어 있어 남성과 관계를 맺으며, 남성을 증오하고 있으면서도 남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오랜생활을 경험한 여성들은 대부분 동성애적인 경향을 강하게 표출시키며 일명 경조증(Hypomania)[91]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윤락여성의 지능지수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 원래 지능이 낮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너무 마약이나 술, 환각제에 시달리다 보면 기억력, 사고력이 감퇴되고 또한 행동반경이 좁음으로 인해 모든 생각이 단순화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다른사고를

---

91) 사고와 행동의 과잉, 지나친 정서적 흥분, 관념의 비약, 과도한 낙천, 과잉의욕등의 증세를 말한다.

G. 지능검사 分析[92]

(평 균 지 능 지 수)

IQ	%	IQ	%	IQ	%	IQ	%
78		97		114		132	
79		98	20%	116		134	
81	30%	100		118		135	
82		102		119		137	
84		103		121		138	0.1%
86		105	10%	122		140	
87		106		124			
90	35%	108	2.9%	126			
92		110		127	1%		
94		111	1%	129			
95		113		130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머리 회전을 할 수 없게 만든 것도 주요 요인의 하나이다.

92) 정범모, 간편지능 검사법 요강(서울 : K.T.C, 1987), pp.3-13.

H. 性病檢査

1. 檢査方檢

a. 매독(Treponema Pallidum)[93]

(1) 혈청학적 검사(Serologic Test for Syphilis)를 통한 VDRL test:0.03% cardiolipin,0.9% Cholesterol,0.21±0.01% Lecithin을 포함한 Alcohol 사용.

(2) 완충 식염수 (buffered Saline):PH 6.0±0.1

(3) 56℃에서 10분간 비동화[94]하여 검사결과 양성 반응을 나타낸 인원을 %로 나타내었다.

b. 임질(Neisseria Gonorrhoeae)[95]

(1) 방법 : 비뇨기에서 직접 채취하여 배지(Chocolateager)에 접종 한 후 35℃ 배양기(candle Jar)에 배양한 방법,당발효 시험인 glucoce,maltose,Lactose 결과에 의한 방법.

위 2가지 방법결과를 비교 검토한 후 똑같이 양성 반응을 나타낸 수치를 %로 나타내었다.

C. 기타(비임균성, 연성하감, 헤르페스)

이상의 성병은 보고된 통계적 수치를 가지고 %로 나타내었다.

---

93) 문희주, 임상 혈청학(서울 : 대학서림, 1978), pp.181-193.

94) ALex.C.Sonnenwirth,L.Jarett,Gradwohl's Clinical Laboratory methods and Diagnosis(London:mosby Company, 1980) pp.2259-2298.

측정을 하기 위해서 측정에 필요없는 보체를 묶어두는 작업.

95) miller weller,A Text book of chinical, pathology (Baltimore:Williams & willkins co,1971), p.408.

2. 검사결과

서울 S지역(1987. 1. 5 ~ 4. 29 까지)[96]

(단위 : 명)

종 류	매 독	임 질	비인균성 요도염	계	검사인원	백 분 율
실 수	509	703	159	1,471	5,600	26.3 %

서울 C지역(1987.4.29. 현재)

종 류	매 독	임 질	비인균성 요도염	기 타	계	검사인원	백분율
실 수	35	144	99	100	379	509	75 %

(S와C지역의 성병 대상 나이)

나이	10-20	21-30	31-40	기 타	계
%	10	70	15	5	100

(S일부지역 업종별 보건증 발급현황)

식품위생업소	1,044	공중 목욕탕	34	인삼찻집	13
숙 박 업 소	103	접 객 업 소	509	이 발 소	1
이, 미용사	307	다 방	81	계	2,092

(검사 결과에 의한 성병유무)

임 질(Neisseria Gonohoeae)	35 %
매 독(Treponema pallidum)	15 %
연성하감(Chancroid)	1 %
기 타(비임균성)	49 %

96) S구청의 보건과. 검사 통계표.

85년도 보건소 등 성병관리 기관에서 실시한 등록관리 대상자 검진결과 전체 검진자의 7.2%(81,413명)가 성병에 감염되었다. 이것은 84년도 7.7% 유병률보다는 감소이지만 환자 절대수에 있어서 84년도 79,858명에 비해 1.9%(1,555명)가 늘어난 것이다. 제일 많이 걸려 있는 성병으로는 임질을 꼽을 수 있는데 윤락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균자[97]와 감염자[98]의 숫자는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종 성병인 AIDS는 우리들에게 무서운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도별 성병 유병률) (%)

연 도	70	75	80	85
유병률	4.1	5.6	8.5	7.2

(자료 : 보사부)

I. 혈액형 검사[99]

(일 반 혈 액 형)

A 형	B 형	O 형	AB 형
32.5%	28%	29%	10.5%

97) 질병은 있으나 증상이 안나타나고 전파력만 있는자.
98) 증상과 전파력이 함께 있는자.
99) Harriet B. williams, serology, Immunology and Blood Banking (AVI Publishing Company, 1977), pp. 59~68.
Slide를 사용한 혈구형(cell Grouping)검사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구청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하였다.

(윤락여성 혈액형)

A 형	B 형	O 형	AB 형
30 %	20 %	45 %	5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남·여 포함)들은 A형이 가장 많고 O형, B형, AB형 순이다. 그러나 윤락여성들 중에는 O형이 상당히 많이 분포 되어 있다. 정확한 원인은 더 연구되어야 하겠으나 아마도 O형의 외향적인 성격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J. 淪落女性의 生活分析.

① 수입의 대부분을 다른 집단에게 빼앗김으로써 실제적으로별로 남는 돈이 없다. 지출내용을 보면 포주상납비, 방세, 영업유지비, 임검시 무마비, 임신중절비, 치료비, 기둥서방상납비, 텀푸상납비, 비품비, 전기세, 청소비, 수도세, 세탁비, 유흥비 등이 주종을 이룬다.

② 이용가치가 없어졌을 경우 가차없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팔려간다.

③ 도망에 대비해 감시조가 항상 있으며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고향집에 까지 찾아가 망신을 시킨다.

④ 마약과 환각제를 남용하고 있다.

⑤ 몸에 상처를 내거나 담배불로 몸을 지지는 건달들에게 욕을 보고 있다.

⑥ 자학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⑦ 말이 거칠어지고 폭주를 한다.

⑧ 사창가는 치외법권지대이다. 폭력, 감금, 고문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⑨ 원망과 죄의식, 그리고 구타에 의한 남성에 대한 증오심, 경찰에 대한 노이로제 등이 겹쳐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⑩ 윤락도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 더이상 헤어나오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해 버렸다.

⑪ 생활이 단순화 되어 창조적인 두뇌활동을 할 수 없다.

⑫ 무엇보다도 새로운 직업이나 기술이 생겨나도 자주적으로 자신이 땀흘려 벌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 되어있다. 이들은 집으로 돌려 보내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게 하여도 대개는 오래 있지 않아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유는 가족, 친지 등으로 부터 배척을 당하고 사회에서 이를 멸시하는 풍조와 함께 한번 망가진 몸에 대한 자포자기가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윤락 이외의 방법으로는 짧은 시간에 그만한 돈을 벌 수 없다는 경제성도 많이 작용한다.

Ⅶ. 淪落女性 宣教를 위한 프로젝트.

A. 宣教 方法.

선교역점은 역시 우리들의 사회가 좀더 인간중심의 사회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가장 큰 선교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희생된 여성들을 어떻게 복음화 시키고 올바르고 건실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성화의 길로 인도되어서 아름다운 직업관과 성경적인 윤리의식을 소유하여 우리들의 사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환경으로 이끌어 주는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수용되어 있는 여성들을 통해 여러가지 방법론[100]을 동원하여 선도하고 있지만 효과를 별로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료생 동태 (경기도립 : 87.12.31 현재) [101]

구분	계	취업별					귀가	결혼	기타
		소계	이용	미용	양재	자수			
인원	276	37	7	8	21	1	235	4	.

100) 소위 기술학원을 통한 양재교육, 운전교육, 미용교육, 미싱자수교육등
101) 현황 및 사업계획, 경기여자기술학원 동두천분원, 1988.

그 이유중 가장 큰것은 바로 정신혁명이 미약 했다고 볼 수 있다. 타율적인 타성에 젖은 이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종교교육을 통한 정신혁명 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는 문제가 포함된다. 더불어 신앙 실천화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부터 우러나와야 한다. 또한 보건학적인 문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윤락여성 선교를 위해서는 먼저 정신개조를 위한 방법론이 대두 되어야 하고 구조적인 현실을 타파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바른 인간화 작업이 실시 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기술분야가 뒤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영적인 종교교육을 통한 정신혁명이 있어야 할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간 존엄성을 인식하고 자아의식 및 발견을 통한 협동심 및 공동체 생활의식을 가지고 목표 지향적 인간상을 확립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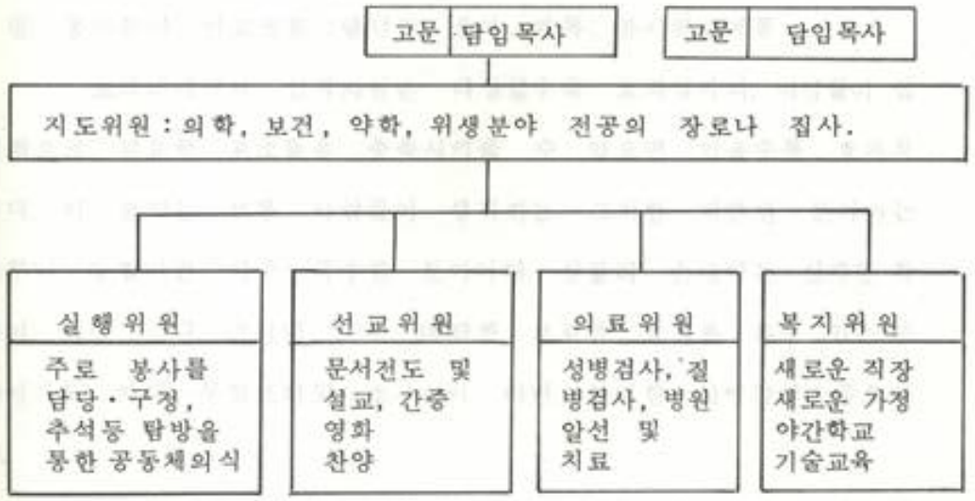
B. 教會 共同體 안에서의 宣敎 (H. M－2－E+N+S)

교회공동체 안에서 할수있는 가장 최선의 선교방법은 수용되어 있는 윤락여성을 통한 선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곳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상당한 위험과 실패가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지역에서의 접촉은 특수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교회에서는 제한된 수용소나 혹은 새로운 삶을 영위할려고 하는 여성들을 위한 선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될 수 있다.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나아가서 또다시 그런일을 하지 않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한 우리의 선교(H.M:Home Missions)는 또다른 사마리아 인을 위한 복음(E:Evangelism)과 양육(N:Nurture), 봉사(S:service)로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선교를 H.M-2-E.N.S선교[102] 라고 볼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조직)



102) 나일선, 오늘의 아시아 선교(서울 : 보이스사, 1980), pp. 40-42. 우리들과 문화적으로 어느정도 공통 토대를 가지긴 하였어도 우리 자체의 지역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에는 상당히 이질성을 가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E-2선교라고 본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교인의 발굴로 중요한 선교 프로그램에 속한다.

(교회내의 인적 자원의 활용을 위해)

① 의학분야 : 비뇨기과, 피부과, 내과, 치과계통

② 보건분야 : 방사선과, 위생사, 임상병리사, 약사계통

③ 사회복지학, 심리학분야

④ 인문분야 : 국어, 수학, 영어, 도덕계통

⑤ 종교분야 : 신학, 기독교교육계통

⑥ 기술분야 : 자수, 미용, 양재, 수공예계통

⑦ 음악분야 : 성악, 기악, 레크리에이션계통

⑧ 봉사분야 : 선교프로그램담당, 음식, 의복, 봉사위원계통.

교회내에서의 인적자원은 다양할수록 효과적이다.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 있을수록 효과적이다. 이 분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막연한 분야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아주 특수한 분야이다. 선불리 손대서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러나 또한 대단한 보람과 효과를 볼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아닌 철저한 사명감이 중요하다.

윤락행위가 독버섯 처럼 불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8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증대로 인한 소비산업이 발달하면서 향락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향락지대는 서울역, 영등포역

전, 청량리, 미아리 등지 였으나 이제는 전국 대 도시가 모두 술집, 사창가라고 할 만큼 향락산업이 번창했다. 이렇게 비대해진 향락산업에 필수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여성들이며 술집이 하나 새로 생길때마다 정숙한 부녀자들이 4～5명씩 인신매매단의 그물에 걸려든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윤락여성을 필요로 하는 남성이 있는 한 이러한 사회악은 없어질 수가 없다. 결국 교회와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는데 스스로 앞장서야 하겠고,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것이다.

C. 敎會와 地域社會 共同體 안에서의 宣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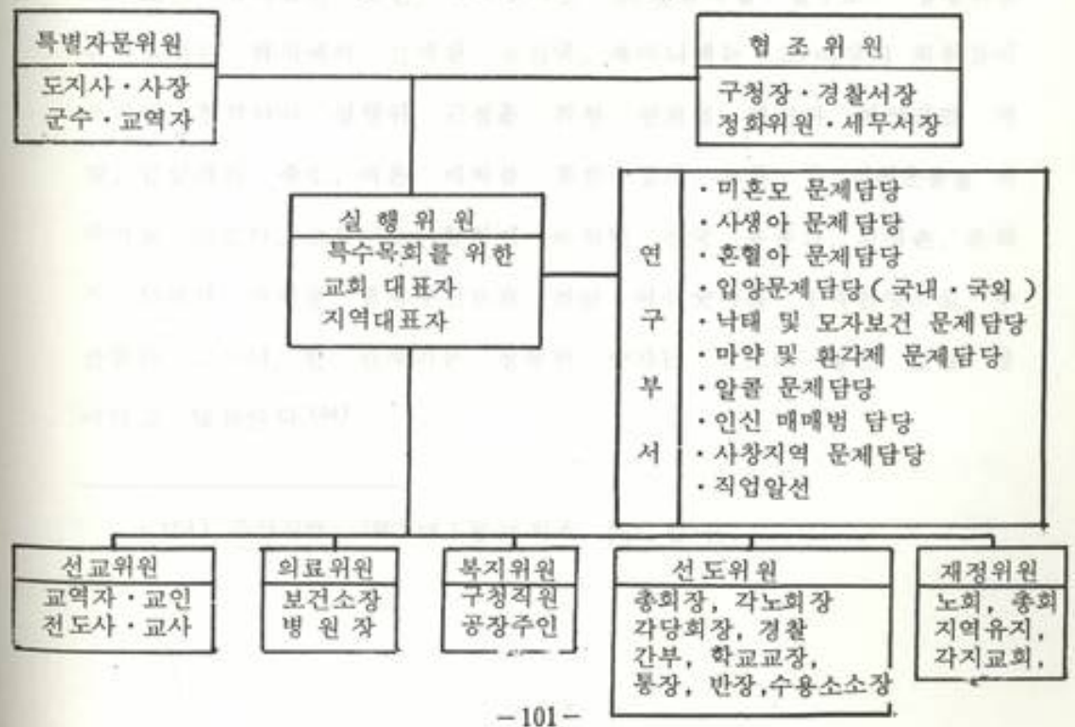
〔M=E+N+S(S.S+S.A)+F〕

윤락행위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협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러기관의 협조와 여러분야의 자문이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전적인 선교관이 필요하다.[103] 선교 자체를 일반 개인 구원(Personal Salvation)과 병행하여 사회구원(Social Salvation)을 동시에 병행시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안에서 뿐만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선교적 복음(Evangelism), 양육(Nurture), 봉사(Service)에 있어서 사회적인 불평등에 교회가 대처하고 (Social Service)서로의 관계를 맺으며(Fellow ship)결국 사회의 구조

103) 강의노우트, 선교신학 1989년 1학기

적인 원인을 제거(Social Action)혹은 변화 시킴으로 보다더 근본적인 치유를 실시 할수 있다. 사실 사창가를 정화시키고 목회를 한다는 자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론과 실제가 잘 조화가 되어야 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그룹이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차원에서의 향락산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사회, 정치, 경제적인 윤리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사회는 너무 혼돈된 그리고 세속적인 면만을 보였왔다. 또한 교회도 자기성장과 자기만족에 빠져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선교를 소홀히 해왔다. 자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참사랑의 도가 퇴색 되어버린 현실을 만들고 말았다.

(지역사회에서의 조직)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성행위문제와 여성운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윤락 반대운동을 확산, 전개하기로 한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전개해 오던 윤락반대운동을 여성들의 연대운동을 통해서 여성운동의 차원으로 집결하고 구체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중점논의 했다. 한국교회 여성협의회는 기독교 6개교단(예장통합, 감리교, 기장, 구세군, 성공회, 루터교)여성단체들의 연합체로서 윤락행위에 관한 반대운동을 지난 74년부터 펴왔었다. 당시 사회문제로까지 번졌던 기생관광을 근절하기 위해서 일본교회 여성들과 연합하여 한국기생관광의 실태를 조사, 비인간적인 처사인 기생관광 매춘행위를 시정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매춘반대운동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해오다가 여성운동의 차원으로 끌어들인 것은 국제행사인 88올림픽을 앞두고 성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전개된 것인데, 세미나에는 30여명의 회원들이 토의에 참석하여 성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법 개정과 여성직업 개발, 임금격차 축소, 여론 매체를 통한 공개 토론 등 실천운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교회여성연합회에 의하면 전국 유흥가, 기지촌, 윤락가 등에서 윤락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여성숫자를 1백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인다.[104]

---

104) 주간경향, 1987년 1월 25일호, pp. 42-44.

그동안에는 생리학적 원인에서 성행위의 문제점을 찾았지만, 이제는 인간의 노동력으로서의 성(性)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에게 생계적 혜택을 충분하게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행위를 근절해야 하지만, 실현이 쉽지 않을 경우는 적어도 포주등 착취자들의 횡포등을 막아야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성에 대한 인격적 모욕과 하나님이 선물로 준 성(性)을 악용하는 매춘행위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므로 이를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협의회가 정부 기관에 보낸 건의문의 요지였다. 이들은 비인도적이며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매춘행위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기지촌과 제주도 등 관광단지에 회원을 파견, 실태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매춘행위를 생업으로 하고있는 윤락여성들이 노동으로서의 성(性)을 제공하며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합회측은 윤락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선행문제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① 윤락여성을 자체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점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야한다.

②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밀매조직 및 윤락행위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과 실시가 있어야 한다.

③ 윤락여성을 윤락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폭력, 중간착취, 불법 감금행위와 관계기관의 미온적인 단속을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대수술이 있어야 할것이다. 이뿐 아니라 세계속의 한국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

해서는 성행위를 발본색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관광객의 덤핑유치와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춘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서 제주도 등 종합관광지역이 새로운 성행위지역의 종합화가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손꼽았다. 세미나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과거에는 윤락반대운동이 윤락자체에 한해서 이뤄졌다면, 이번의 경우 여성운동으로 직결시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점이다. 이는 곧 성을 도구화시켜 상품으로 매매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근절하자는데 의미가 크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윤락반대를 넘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하자는 취지는 쉽게 공감을 샀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윤락여성이나 사창가가 없어져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루 아침에 없앨수도,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필요악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하는데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차라리 차선책으로 공창제도를 합법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공창제도를 합법화시키면,

① 윤락산업을 음성적으로 벌이는 사업가들의 불로소득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으며, 탈세문제를 좀더 개선 시킬 수 있다.

② 변태성욕자나 성격장애등에 의한 여성의 희생을 감소 시킬수 있으며, 어느정도 여성들이 신분을 보장 받을수 있다.

③ 정부가 관리함으로 인해 윤락여성에게 기생하는 반사회적인 조직을 무력화 시킬수 있으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인신매매나 포주의 횡포를 예방할 수 있다.

④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성병이나 기타 질병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수 있다.(이점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⑤ 정신혁명 측면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수 있다.

⑥ 마구잡이로 생기는 공창지역을 일정한 구역으로 제한하여 주택가나 학교 근방으로 퍼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도는 다만 차선의 방법일뿐 최선의 방법은 결코 아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까지나 윤락행위를 구조적으로 제거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통전적인 선교〔M = E + N + S (S·S + S·A) + F〕방법을 통해 사회 구조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D. 人間化에 대한 追究.

결국 윤락여성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만든 사회가 가장 큰 문제임을 보았다. 그동안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 남자의 행위는 묵인내지는 당연시하고 똑같은 일을 한 여성의 경우에만 돌을 던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흐르는 남성위주 사고방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은 한 인간으로서 똑같은 책임을 지며,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

되는 죄가 아니고 쌍방 모두에게 적용되는 쌍벌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있으나마나한 남녀 평등고용법을 다시 개정하고 강화시켜야 하고, 가부장적인 역사의식에서 탈피하고 인간화위주의 역사관이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 즉 하나의 객체로서 "나"와 "너"가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인간)가 있다는 인간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가부장적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부터 탈피하여 보다더 발전된 사회로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옆에 술집, 술집옆에 여관, 여관옆에 호텔이 난무하는 현상은 이러한 남강여약(男强女弱)사상을 교회가 타파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리고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좀더 합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공동체로 변화시키는데 교회가 앞장을 서야 한다.

나라에서 주관하는 보호소 시설을 일반 공무원이 관장을 하면 진정한 의미의 인간개조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시설을 종교단체에서 맡아야 하며 기술적인 지원도 종교단체에서 맡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단속하는 경찰과 상담소, 기술원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단속과 죄적용 차원이 아닌 선도사업과 재활사업적인 측면에서 일을 추진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적으로 보면 일부지역은 지역 유지들이 대부분 포주이거나 포주 출신이 많다. 또한 이들은 향락산업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탈세하고 있다. 더군다나 벌어들인 금전으로 부동산 투기, 사채놀이 등에 사용함으로 인해 국민적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습관성 약품에

도 깊숙히 연루되어 있어 반사회적, 반민주적, 반민중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들이 들이는 밑천은 오직 여성뿐이다. 여성의 몸하나를 밑천으로 삼아 자신의 부를 축적하며 사회 기강을 흔들어 놓고 있다. 어느 지역은 자금력 때문에 각 정당의 의원들마저도 이들 눈치 보기에 바쁜 실정이다. 이러한 모순속에서는 인간화에 대한 추구가 결코 이루어질수 없다. 따라서 쌍벌죄가 적용될 때에는 이들도 모두 포함시켜서 법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것이다. 현재 윤락 행위 방지법이 있지만 상당한 모순을 담고 있다. 사실 포주 한명에 보통 10명이내의 여성이 있음을 감안해 볼때 포주를 검거하고 방지하는데 주력 하는것이 윤락 여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가장 효과적임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치유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이고 불평등적인 법률이 시급히 시정되고 개정되어야 할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윤락 행위를 없애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차선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사창가를 합법화 하는 방안도 제시 할 수 있다. 여하튼 우리의 의식이 보다더 바뀌어서 좀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야말로 인간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Ⅷ. 結　　論

윤락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차원은 곧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영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위기의식 상태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적 그리고 지적인 도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강단이 너무 빈약함을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망에 대한 메시지는 사라지고 오직 현세적 기복만 강조되고 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줄 알아야 한다. 성도는 자신이 믿고 전하는 메시지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하며, 진실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짓없는 생활, 확신에 찬 메시지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등이 복합될때 비로서 우리들의 선교는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목회는 어떠한 단체나 도그마에 한정되어서 그것을 고수하는 편협된 신앙에서 탈피하여 보다더 활기있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명감이 투철하고 자신을 감추는 진정 땀흘리는 목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목회는 결코 혼자 하는것이 아닌만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교회공동체, 지역공동체, 민족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며 진행시켜 나아가야 한다. 진정한 제자의 도란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주께 배우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동안 교회가 선택했던 부르조아 집단을 향한 선교를 지향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우리들의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인간을 상품화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악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제거시켜야 한다. 이러한 일에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앞장서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의 눈이 새로와져야 하며 잘못된 역사관을 새롭게 정립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을 보다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몇가지를 제한함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가부장적 성차별 법률을 철폐해야 하며 올바른 인간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교회가 향락산업이 번창하는 것을 막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야 하며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셋째, 신앙적인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부당피해를 본 여성에 대한 포용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새로운 인간성 회복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며 새 삶을 위한 직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넷째, 복음의 효과를 위해 피해여성들만의 새로운 공동체가 건설되어야 한다. 이미 이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더이상 예배를 본다거나 종교적 행사를 하는 모든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이들만

의 공동체가 형성된 새로운 예배형태가 제시 되어야 한다.

다섯째, 제 2 의 범죄를 막기 위하여 그곳에서 태어난 2 세들의 교육과 건전한 기술함양을 위한 장소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선 태어난 아기들의 교육시설과 낙태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여섯째, 모든 학과과정에 인간화 교과과정이 생겨나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동등 역사 의식을 가진 새로운 교재가 편찬 되어야 하며 모든 대중매체나 모든 사회구조가 이러한 방향으로 개혁돼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가부장적 이념과 소수 여성 독점 그룹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교육적 개혁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적 차등이 없어지도록 서로서로 협력해야 한다.

>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 리 셨다.
>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 (루가 4:18 ~ 19.)

— 參 考 圖 書 —

① Aland-Nestle,Novum Testamentum Graece. XXVled.Germany:DBS,1979.

② Beechey,Veronica."on Patriarchy." Femimist Review, no.3 1979.

③ Bibila Hebraica stuttgartensia.Germany:DBS,1984.

④ Katherine G.,and C.H.George.The protestant mind of the Reformation.Princeston University press, 1961.

⑤ Millet,Kate. Sexual politics.New York:Avon Books, 1971.

⑥ Sonnenwirth,A.C:Jarett,L.Gradwohl's Clinical Laboratary mathods and Diagnosis.London:Mosby company,1980.

⑦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Gerhard Kittel & G.Friedrich (ed.),Grand Rapids.Eerdmans,1965.

⑧ Textbook of clinical Pathologh.Baltimore:Wliiiams & wilkins Co,.1971.

⑨ Williams,Harriet B. Serology,Immunology and Blood Banking. AVI Publishing Company,1977.

⑩ Wright Louis B. Middle class culture in Elizabethan England.Chapel Hill: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1935.

⑪ Burmham,Linda:Louie miriom. A marxist critique of socialist Feminism.김애령, 김혜경 역, 여성해방 이론의 쟁점. 서울 : 태암사, 1989.

⑫ Barnete,Henlee H.Introducing Christian Ethics. 최봉기 역. 기독교 윤리학 개론, 대전 : 침례신학대학 출판부,1988.

⑬ Eisenstein,Hester.Contemporary Feminist Thought.한정자 역, 현대여성 해방 사상.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1986.

⑭ Harrs,R.L:Archer,G.L;and Waltke,B.K.Theological Word book of the Old Testament.Vol I.구약원어신학사전. 서울 : 요단 출판사, 1986.

⑮ Hamilton,Roberta.The Liberation of Women.최민지 역, 여성해방 논쟁. 서울 : 풀빛, 1982.

⑯ Heim,Karl.Die christliche Ethik.강학철역, 기독교윤리. 서울 : 컨콜디아사, 1982.

⑰ Kittel,Gerhard.,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trans.G.W.Bromiley.Grand Rapids. Eerdmans,신학성서신학사전. 서울 : 요단출판사, 1986.

⑱ Mill,stuart John. The subjection of women.김예숙 역, 여성의 예속. 서울 : 이화여대출판부, 1986.

⑲ Rich,Adrienne.of wonan Born: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 New York:W.W.Norton, 1976.

⑳ Tannahill, Reay.Sex in History. 김광만역, 性의 역사,서울 : 김영사, 1987.

㉑ Thielicke ,Helmut. Theological Ethics.vol.3. Michigan:W.B.Eerdmans publishing co,1979.

㉒ 강견실. "매춘관광과 한국여자." 샘이 깊은 물은, 1988 년11 월호, pp.70 ~ 72.

㉓ 강원돈. "신학적 해석학의 새로운 모색 : 민중문화 운동의 민중신학적 수용." 신학사상 제 53 집, (1986. 여름호), p.268.

㉔ 김남철. "한국 민중론." 로고스 제 24 집. 서울 : 장로회 신학대학원 학우회, 1988.

㉕ 김이봉. 여성신학. 서울 : 도서출판 양서각, 1985.

㉖ 김윤환. 김낙중, 한국노동운동사, 서울 : 일조각, 1971.

㉗ 김진균. 조희연, "한국 사회의 하층 계급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서울 : 도서출판 한열, 1986.

㉘ 국어국문학회 지은. 새국어 대사전. 서울 : 학연사, 1971.

㉙ 나일선. 오늘의 아시아 선교. 서울 : 보이스사, 1980.

㉚ "르포 인신매매." 생활 간호 (1988.1).

㉛ 맹용길. 제 4 의 윤리. 서울 : 성광문화사, 1985.

_____. 기독교 윤리학 입문. 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76.

_____. 현대인과 윤리. 서울 : 기독교문사, 1987.

㉜ 문정창. 군국 일본 조선 점령 삼십 육년사. 상권, 서울 : 백문당, 1965.

㉝ 문희주. 임상 혈청학. 서울 : 대학 서림, 1978.

㉞ "서울에 호스티스 7일시장." 주간경향, 1986년 12월 14일호, pp. 42-43.

㉟ 심정인. "여성 운동의 방향 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여성 제 1 집.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85.

㊱ 안병무. "예수와 오클로스." 민중과 한국신학.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87.

㊲ 원종덕. 김경희, 혈액원의 실기, 서울 : 고문사, 1979.

㊳ 윤일용. 매춘. 서울 : 동광출판사, 1987.

㊴ 여성안수 청원. 서울 :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 기획 연구부, 1987.

㊵ 여성 유권자 연맹. 여성 근로자 실태 조사 보고서, 1980.

㊶ 이동식. "性愛의 精神醫學." 현대인 강좌 6. 서울 : 박우사, 1963.

㊷ 이여성. 김세용, 숫자 조선연구 제 2 집. 경성, 1931.

㊸ 이현희. 창기와 명기의 애환. 서울 : 명문당, 1988.

㊹ 이효재. 여성의 사회의식. 서울 : 평민서당, 1985.

_____. 한국의 여성운동. 서울 : 정우사, 1989.